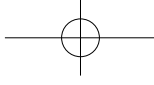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법무사 입문하기

Learning Guide Book



01

법무사란 무엇인가?

■ 법무사란?

종전의 사법서사를 개칭한 것으로 法曹의 一員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외에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이다.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 조정신청, 독촉사건, 비송사건의 신청, 고소·고발장 작성 등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금지와 보람을 안겨 주는 매력있는 전문직업으로 볼 수 있다.

■ 법무사의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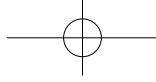
-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시험합격자의 일부는 기존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합격자의 대부분은 개인사무소 및 합동적인 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법무사 마크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 결의 친근한 법률조력자입니다.





■ 법무사의 주요업무

◎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 상소장 및 그 이유서
-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 비송사건 신청서
- 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
- 공탁신청서
- 형사고소, 고발장
- 고소 취소장
- 진정서, 탄원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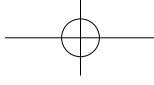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 법원과 검찰청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률허계를 확정하는 각종의 계약서, 합의서
-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 최고서, 통지서
- 검찰 이외의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등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부동산등기 신청서 (선박, 입목, 광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 · 담보물권의 설정 · 처분등기, 각종 말소 · 변경, 기타 등기 (164가지)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 회사의 설립 · 합병 · 조직등기, 자본증가 · 감소등기, 사체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 · 종임등기 (65가지)

법률자문 및 상담	개인의 법률생활, 개인사업자 · 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등기 분야	부동산관련 등기, 회사관련 등기 등 등기업무 전반
소송 분야	민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 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경매 분야	권리관계 분석, 경매신청, 입찰대리
민사 신청	가사, 공탁, 가압류 · 가처분
개인회생, 파산 분야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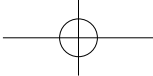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법무사 전망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사건의 작성·신청대리, 경매사건 등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신청대리를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건수임수의 20~30%가 민사나 신청사건, 70~80%가 등기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몇 년에 걸친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등기사건은 1279만 건(2006년) → 1177만 건(2007년) → 1150만 건(2008년) → 1100만 건(2009년) → 1064만 건(2010년) → 1146만 건(2011년) → 1186만 건(2012년) → 1069만건(2013년) → 1126만건(2014년) → 1300만건 추정(2015년)식으로 계속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일부 법무사는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하여 법무사 업계의 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법무사 업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보통 언급되는 화두는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사건의 감소, 둘째,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 업계로부터의 도전등이 있다.

이 중 첫째 문제, 수년간 에 걸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등기사건이나 법무사사건 자체가 감소하여 사무실 운영에 위기감 혹은 긴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법무사 업계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전문 직종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개업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타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위기감이 법무사 업계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 조그만 위안이 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말한다면 법무사 업계는 외부적인 영향을 다른 직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이 1996년 개업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쓰나미처럼 다가온 IMF 사태 시에도 오히려 가압류·가처분사건이 폭증하였고, 그 시점이 지나니 바로 DJ 정권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법인설립 및 관련 상업등기사건이 엄청 많아졌고, 그 다음 정권시대에는 부동산경기의 호황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담보대출사건이, 그 이후에는 생각지도 않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던 점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법무사 업계가 100년 이상 시대의 부침에 대응하여 항상 경쟁력을 가지고 잘 적응해왔듯이 현재의 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자신한다.

둘째 문제,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업계로부터의 도전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해방 이후 그 동안 변호사업계는 송무위주의 법률서비스에 주로 집중하고, 법무사업계는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신청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는 변호사업계에서는 종래 법무사업무라고 치부하였던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에도 새로운 관심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따라서 종래 법무사업계에서 처리하던 상기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다른 업종에서 뺏아가고 있는 현실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에서 생각해본다면 1백년이 넘는 유구한 기간 동안 법무사가 처리해오던 위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이 줄지에 변호사업무에 귀속되고 법무사 직역은 순식간에 직역 자체가 스스로 소멸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제 오늘이 다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 맞추어, 정확·신



Judicial Scrivener 「입문하기」

속·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법무사업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국의 법무사들은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단일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매전문법무사, 송무전문법무사, 상업등기전문법무사, 특수법인등기전문법무사, 개명전문법무사, 상속등기전문법무사, 개인회생전문법무사, 가압류가처분전문법무사, 가사사건전문법무사, 호적전문법무사, 비송사건전문법무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는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 시민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에 추가하여 법무사 업계에서도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거론한다면 (1) 소액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가 법정대리권(변론권)을 쟁취하는 문제 (2) 출입국관리소 관련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획득하는 문제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또한 2011. 10. 12부터 시행된 동산 및 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등기제도, 채권담보등기제도 등에 대한 법무사 업계의 기대감과,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 법무사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린다.

법무사업무의 현실이 현재 그리 밝은 것은 아니지만(모든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미래가 어두운 것은 전혀 아니다. 모두 다 노력하여 단계적으로 법무사업무의 직역을 확대하여 간다면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그 밝은 미래는 실력과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필자: 유석주 법무사〉

03

법무사 시험제도

■ 시험 실시기관은?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선발예정인원?

- 일반응시자 : 120명(2015년 기준)

■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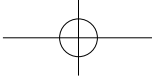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구술시험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최종합격자(120명, 2012년 기준) 3배수인 360명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



Judicial Scrivener 「입문하기」

■ 시험시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시험시행 일정 및 공고방법

구분		시행일정	공고방법
제1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6월 초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시험일자	매년 6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8월 초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제2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8월 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9월 중순(금,토 양일)	
	합격자 발표	매년 11월 말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제3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11월 말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1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2월 초	관보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2015년 시험기준〉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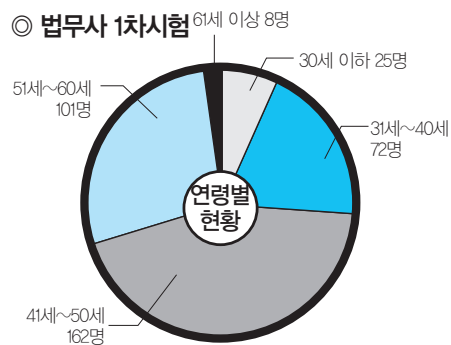
법무사 합격자 통계

합격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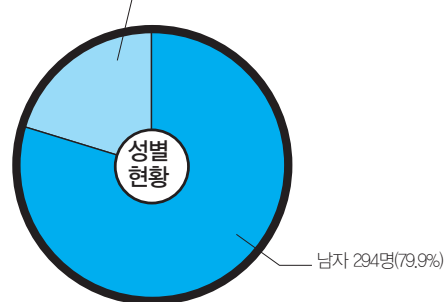
연도(회수)	출원인원	1차 합격인원	1차 커트라인	2차 합격인원	2차 커트라인
92년(1회)	8,259명	311명	65.5	59명	56.77
94년(2회)	4,438명	301명	71.5	60명	56.70
96년(3회)	3,272명	421명	70	80명	57.75
98년(4회)	6,622명	127명	73.5	30명	61.41
99년(5회)	9,229명	154명	80.5	52명	52.50
00년(6회)	8,044명	248명	83	80명	54.70
01년(7회)	6,706명	312명	84	101명	57.25
02년(8회)	6,697명	307명	85.5	100명	51.68
03년(9회)	6,633명	318명	85	100명	53.375
04년(10회)	6,588명	388명	86	121명	54.125
05년(11회)	5,602명	365명	83	122명	51.375
06년(12회)	5,158명	373명	77.5	123명	53.00
07년(13회)	4,811명	386명	-	121명	53.00
08년(14회)	4,340명	364명	73.5	120명	41.813
09년(15회)	4,266명	382명	72.5	120명	55.587
10년(16회)	4,100명	365명	75.0	121명	63.375
11년(17회)	3,798명	370명	73.0	121명	53.313
12년(18회)	3,511명	373명	71.5	121명	53.625
13년(19회)	3,226명	371명	69.5	120명	53.225
14년(20회)	3,333명	362명	67	122명	53.938
15년(21회)	3,261명	368명	60.5	121명	5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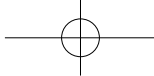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2015년 제21회 합격자 현황

◎ 법무사 1차시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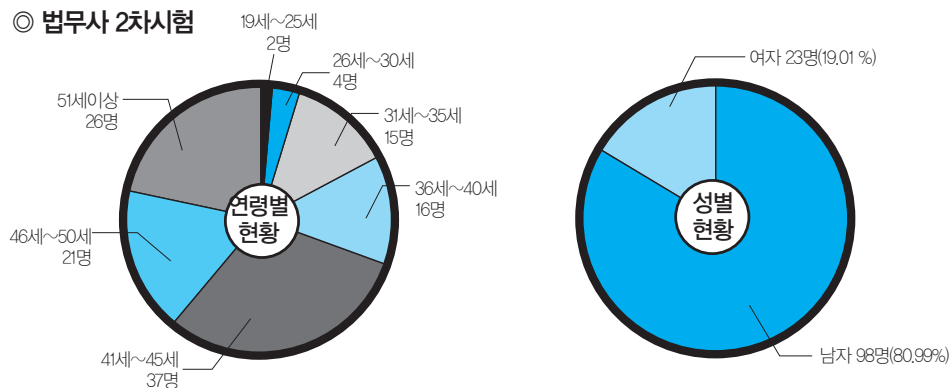


Judicial Scrivener 「입문하기」

◎ 1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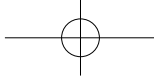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제1과목	헌법 · 상법	62,722
제2과목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8,728
제3과목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5,608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69,630
전 과목 평균		66,672

◎ 법무사 2차시험



◎ 2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5년 기준)

제1과목	민법	50,37
제2과목	형법 · 형사소송법	53,32
제3과목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63,15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62,74
전 과목 평균		57,40



05

법무사 단계별 학습전략

■ 시험 준비 단계

◎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의 파악

사전준비 없이 막연한 판단으로 법무사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 방법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기출문제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제빈도 및 경향을 정확히 가늠해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이다.

◎ 수험대책의 구체적 설정 및 교재의 선택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을 꼼꼼히 파악했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수험방식을 선택 해야한다. -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험방식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과 시간배분 및 학습장소, 학원강의 등 적절히 선택해야한다. 학습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력을 높이고 법무사시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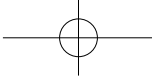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 실력 쌓기 단계

◎ 각 과목별 학습시간의 적절한 배분

과목별 내용은 초보자가 처음 접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과목별 학습목표량과 학습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요약서 또는 실전모의고사 등의 순서로 전체일정에 따라 학습하면 빠른시일 내 효과적으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다.

◎ 전문학원 강의 수강

시험과목의 대부분이 법률과목이어서 각 과목의 기본개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독학은 해당 과목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기보다는 평면적인 단순암기식 학습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독학의 결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무사시험 전문학원의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실력 점검 단계

◎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취약과목

수험생 스스로 사전 자기평가를 통하여 고득점목 목표로 집중학습 전략과목을 정하는 것과 취약과목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과락'에 해당되면 전체 평균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확한 지식의 우선적 습득 및 객관식 시험요령의 파악

각 과목별 특성 파악을 통한 전체적인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릇된 지식은 수험공부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에서 지식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제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집을 통한 실력점검 및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 최종 마무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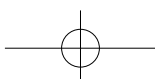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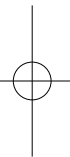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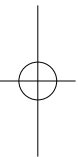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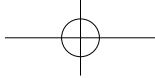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합격을 좌우하는 2개월 전 마무리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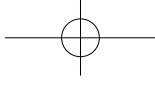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42.195km, 마라톤의 완주거리이다. 법무사시험 2개월 전은 이 마라톤 코스 중 35km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라톤 코스 중 인간이 신체적인 극한에 달하는 지점이자 수험생이 가장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다. 또한 바로 이곳이 수험생활에 있어 마지막 승부가 가능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시험 2개월 전부터는 최대한 정신력을 집중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때의 학습효과는 지난 몇 개월 간의 학습가치와 맞먹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부해 온 것을 법무사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외우고, 문제집이나 요약서, 실전모의고사 등 마무리 교재를 통해 실전 감각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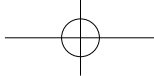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자신의 두뇌에 갈무리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무리하게 공부에만 열중할 경우, 정작 법무사시험 당일 컨디션을 저하시켜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충분한 숙면은 법무사시험 당일 명석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법무사 학습전략

Learning Guide Book



D1

법무사 시험준비 Know-how

■ 1차시험(객관식)

법무사시험의 1차시험 합격을 위해 전략과목과 취약과목을 잘 분별하여 개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차시험 과목이 총 8과목으로 1과목 헌법(20문), 상법(30문), 2과목 민법(40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10문),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공탁법(20문)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기준은 각과목 과락 없이(40점) 2차 합격자의(120명) 3배수인 360명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015년 기준)

법무사시험 과목중 제일 중요한 과목은 민법을 꼽을 수 있다.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일 경우 민법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 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기본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과목으로 접근할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민법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타 과목을 접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차 과목의 문항 수 비중도 1차 시험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수험공부 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기출문제(5년) 출제경향 분석과 난이도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7회 ~21회 기출문제 민법총칙의 경우 민법일반, 권리일반,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변동 등 5단계로 나누어 볼때 어느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 분석표를 잘 파악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하는지 쉽게 알수가 있다. 민법 총칙의 경우 권리의 변동, 권리의 주체에서 매년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고있다.

둘째, 합격자 합격수기도 빼 놓을 수 없다. 합격자 합격수기 중 본인과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 합격자의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 수험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90%만 실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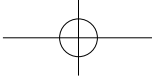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 2차시험(주관식)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1차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복습량이 필요하다.

2차 공부도 1차 공부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 있어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범답안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서 단권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모의시험으로 답안작성의 반복연습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독학으로도 열심히만 한다면 1차 합격이 가능하지만 2차 시험은 독학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개별스터디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개별스터디 구성을 위해서는 주위 수험생을 많이 알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와 같이 수험준비도 변해야 한다. 34년 전에는 시험 출제가 유력한 문제만 뽑아서 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출제경향이 변하여 기본서 전 분야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합격의 영광은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 이상적인 수험생활은?

◎ 겸손과 성실

자만과 게으름은 수험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특히 강의를 들을 때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하며, 강의내용을 마치 스펀지 처럼 빨아들여야 한다. 작은 물구멍 하나가 전체의 독을 무너뜨리듯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다가 수험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 1년 만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합격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 내지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경쟁자인 남들도 똑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버티기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절박한 심정으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버티어 내야 한다.

◎ 체력관리 및 아침시간의 활용

체력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며, 단 10분 만이라도 걷기 내지 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신이 맑은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 단순화된 수험생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3명 내지 4명 정도의 개별스터디를 통한 철저한 수험생활 관리와 절박한 심정으로 합격이라는 한 목표를 향한 수험생들의 일관된 자세, 둘째 열정적이고 성실한 강사의 가르침, 셋째 강의실 및 자습실 환경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의 뒷받침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공동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른 생활은 잠시 다 접어두고 오직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일관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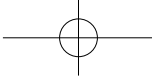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그리고 개별스터디 구성은 학원가에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 중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터디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가족과 같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헌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			1
	헌법의 보장							
	헌정사	1						1
	국가 형태와 구성요소					1		1
	헌법의 기본원리	1	3			2	1	7
	헌법의 기본제도	3	2	1	1	1	1	8
기본권론	기본권총론				1		1	2
	포괄적 기본권			1		3	1	5
	자유권적 기본권	4	7	5	3	7		26
	사회적 기본권	1			1	3		5
	청구권적 기본권			2		1	1	4
	참정권적 기본권	1			1	3		5
	국민의 기본의무							
통치구조론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국회	3	1	1	1	2		8
	대통령	1	1	1	2	1		6
	행정부	1		2	1	1		5
	법원	1			1	1	1	4
	헌법재판소	3	2	5	1	1		12
종합문제			1				1	2
총 계			20	20	20	20	20	100



■ 제21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1. 출제비중

총론에서 2문항(기본원리, 정당제도), 기본권론에서 11문항(자유권에서 7문항), 통치구조론에서 7문항이 출제되어, 예전보다 총론의 비중이 줄고 기본권부분에서 다소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조문문항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대신에,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박스형 문제(3문항)로 치밀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지엽적인 부속법령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대신 헌법 조문을 좀더 꼼꼼하게 암기할 것을 요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3. 판례문항

헌법재판소 판례를 묻는 문제에서 단순히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호영역이나 결정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많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작년대비 난이도

작년시험에서도 헌법시험이 쉽지는 않은 편이어서 오답문항이 5개 이하인 경우 나름대로 선행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형 단순 암기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점, 소위 그저 주는 문제가 없어 지문을 일일이 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쉬웠다고는 할 수 없고 1~2개 정도는 난이도가 더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내용분석 및 학습방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동안 항상 헌법전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하며,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경우 기본서와 더불어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을 함께 활용하여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객관식 시험은 시험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 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법무사 시험에서의 헌법은 소위 전략과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미뤄두다가는 다른 주요과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낮고, 현재판례의 비중이 높습니다. 가끔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부속법령의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강약조절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서 노력한 만큼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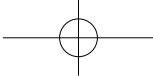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헌법 이재영 법무사

03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총칙 상행위법	상인		1		1			2
	상업사용인				1	1	1	3
	상호		1		1		1	3
	상업등기		1		1	1	1	4
	영업양도			1	1		1	3
	상행위법 총칙		1	1	3	1	1	7
	상행위법 각칙		1	2	2	4	1	10
회사법	회사법 통칙			2				2
	합병합자회사 등		2	2	1	1		6
	주식회사		10	10	12	11	16	59
어음· 수표법	총론		1	2	1	3	1	8
	환어음		3	1	1	2	2	9
	약속어음			1				1
	수표		1	1	1	1	1	5
통치구조론	보험계약		3	2	2	1	2	10
	손해보험		1	1	1	2	1	6
	인보험							
해상법	해상기업조직		2	1	1	1		5
	해상운송		1				1	2
	해상기업위험		1	2		1		4
	항공운송			1				1
총 계			30	30	30	30	30	150



■ 제21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제21회 법무사 제1차 상법시험의 경우, 회사법 16문제, 총칙·상행위 6문제, 어음·수표법 4문제, 보험·해상법 4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그 중에서 판례의 결론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10문제, 조문문제가 20문제 정도가 각각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다 할 수 있으나,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최소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신경향 문제인 박스형태의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워졌고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도 평소에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판례뿐만 아니라 평소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아니하는 개별판례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평소에 시험출제 가능한 주요논점과 관련한 중요판례와 중요조문을 꼼꼼하게 공부한 수험생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 향후 시험준비 방향

평소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했지만 과목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모든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하겠다. 따라서 과목마다 최대한 공부범위를 줄여 합격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범위를 정하여 빠른 반복학습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의 지름길이다 할 것이다.

상법도 그 많은 분량을 빠짐없이 자세히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고,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 있는 부분에 더 노력을 집중하여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출제문항 수가 그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제문항수가 많은 회사법과 총칙·상행위에서 일단은 자신이 목표하는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충실히 그 부분을 공부하고, 많은 수험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음·수표법과 보험·해상법에서는 나머지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무사 상법시험은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와 조문문제로 출제된다. 이에 출제 가능한 주요 판례와 조문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총칙·상행위는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개별판례, 회사법은 주요조문과 판례내용, 어음(수표)법은 주요조문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상 및 항공운송은 출제예상조문을 확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보험법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판례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점에 비추어 조문과 함께 주요판례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상법강의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할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그 안에서는 언급 되는 주요 조문과 판례들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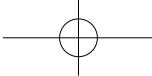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상법 정태덕 교수

04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민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민법총칙	민법일반							0
	권리일반		1	1				2
	권리의 주체		5	3	1	2		11
	권리의 객체							0
	권리의 변동		4	5	8	4	6	27
물권법	물권의 총론		2	1	1	1		5
	점유권				1	1	1	3
	소유권		4	3	3	3	4	17
	용익물권		2	2	1	3	1	9
	담보물권		1	2	2	2	3	10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1	1		2
	채권의 효력		3	3	3	2	2	13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	1	1	1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			2		4
	채권의 소멸		3	2	2	2	3	12
채권각론	계약총론		2	3	2	5	2	14
	계약각론		2	7	5	6	7	27
	사무관리							0
	부당이득		1	1	1	1	1	5
	불법행위		2	1	2	1	2	8
친족법			3	3	4	3	3	16
상속법							2	2
총 계			40	40	40	40	40	160



■ 제21회 민법 총평

금년 제21회 법무사 민법 시험은 예년보다는 1~2개 정도는 분명 어려웠다는 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특히 최신판례 강의)를 충분히 듣고 조문판례집을 충실하게 본 수험생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제21회 법무사 민법 시험을 분석해보면 분야별로는 민법총칙편에서 6문제, 물권법편에서 9문제, 채권법편에서 18문제, 친족상속법편에서 5문제, 종합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조문이 7문제, 판례가 36문제(특히 최신판례문제 4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40문제 전부 출제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 난이도를 높이려는 의도아래 수험서에 잘 나오지 않는 1980년대와 1990년 초반의 지엽적인 판례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민법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36문제는 조문판례집 등 수험서에도 전부 수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문과 판례 문제이었다.

앞으로 내년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본이론을 동반한 조문과 판례를 완벽하게 숙지함은 물론이고 최신판례를 반드시 습득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수험생분들에게 모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민법 학습방향

◎ 전체 체계의 중요성

민법은 그 전체의 개관을 통하여 미리 그 뼈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의 체계를 잡고 있어야만 2차 시험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수업을 진행할 때 매 단원마다 개관을 이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전체 개관의 학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의 중요성

법학은 해석론이라는 시각에서 법조문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조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조문의 내용을 친숙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조문 상호간의 연결이나 조문의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체크도 하여야 한다.

◎ 판례의 중요성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므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 그 결론 부분들을 완벽히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판례 및 특히 최신 판례는 기본이론시간이나 문제풀이 내지 마무리 특강 등에서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 마무리 정리의 중요성

평소에 습득했던 이론들을 시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몇 회독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막바지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풀이 및 마무리 요약정리를 할 때에는 핵심이론 요약정리 및 판례와 조문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 기출문제 등 문제풀이의 중요성

법원관련 시험은 그 기출문제의 호환성이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박스형이나 사례형의 문제처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습득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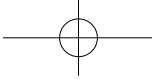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민법 이준현 박사

05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총설	가족관계등록제도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1		1	3
	등록사무의 감독		1					1
	등록부 · 폐쇄등록부				1			1
	각종 부책과 서류		1					1
	등록부등의 공개		1	1	2	1	1	6
등록사무 처리절차	총칙	신고	2	1	1	1	1	6
		직권 정정 · 기록			1			1
		접수(사건본인 등신분확인)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1				1
		등록부의 기록 · 정정, 폐쇄	1					1
	출생신고		2	1	1	1		5
	인지신고			1	1		1	1
	입양신고						1	1
	친양자입양신고						1	1
	혼인신고				1	1		2
	이혼신고			1		1	1	3
	친권에 관한 신고					1		1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사망신고				1	1		2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성 · 본변경신고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국제등록 사무	국제등록사무 총론	1	1			1	3
		국제등록사무 각론						
등록부의 정정						2	2	
가족관계 등록비용	국적취득자의 성 · 본 창설허가			2		2	5	
	개명허가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법 제104조 · 법 제105조의 등록부정정허가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벌칙, 과태료					1		1	
총계		10	10	10	10	10	50	



■ 제21회 시험 총평

이번 시험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으나, 오전 1교시 헌법, 상법, 민법 모두 어렵게 출제되어 맨 나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풀었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실력대로 풀어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문제(1책형 47번, 2책형 50번) 정도 정답지문을 찾기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실제 득점을 보면,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7~8개를 맞춘 득점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전년도에 어렵게 출제되어 전년 점수가 예년에 비해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할 것입니다.

■ 향후 학습방향

가. 최근의 출제 경향 고려

법무사 제1차시험은 8과목이나 되고,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 cut-line이 60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볼 때, 기본에 충실하여 공부량을 줄이되 정확한 숙지를 위하여 단권화, 강약조절, 꾸준한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나. 과목별 고른 공부 필요

실무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무사 제1차시험 8과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배점은 5%에 해당합니다.

제1차시험 합격을 위하여는 배점이 큰 과목이거나 작은 과목이거나, 제2차시험 과목과 공통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불문하고 과목별 70점을 목표로 삼아, 과목별 고른 점수를 맞은 수험생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부지런히 모든 과목을 골고루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수험전략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을 소화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조문과 예규를 집중 반복하여 숙지하면 수험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문제는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적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공부한 지문들을 정확히 알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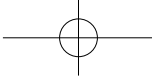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법 김지후 교수

06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민사집행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편	장	절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제1편	집행기관			1			1	2
	불복			1	1	1	1	4
	집행비용			1		1		2
	담보							0
제2편	총설		4	4	5	5	4	22
	집행보조		2	1	3	1	1	8
	부동산에 집행	강제경매신청	2	1	2	3	3	11
		압류절차	2	5	4	4	8	23
		현금화절차	7	4	6	1	6	24
		배당절차	4	2	2	5	2	15
		경매취하		1		1		2
		임의경매	1		1			2
		형식적경매		1		1		2
		임차인	1					1
	선박등			1		2	1	4
	동산	유체동산	1	1	1	1	1	5
		채권	2	4	4	6	2	18
제3편	유체물인도							0
	대체집행		1			1	1	3
	간접강제						1	1
	의사진술			1				1
제4편	시설		3	1	3	1		8
	신청과 심리			1				1
	재판		1			1		2
	채무자의 구제		1	3	2		2	8
	집행		3	2	1		1	7
통 계			35	35	35	35	35	



■ 제21회 시험 총평

1. 출제된 부분

제21회 법무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론에서는

민사집행에서의 불복에서 1문제, 집행기관에서 1문제가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장 총설에서는 강제집행의 요건에서 1문제, 개시요건에서 1문제, 집행의 정지, 취소에서 1문제,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절차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장 집행보조절차에서는 1문제, 제3장 부동산 집행에서는 19문제, 제4장 선박 등 집행에서 1문제, 제5장 동산에서는 유체동산에서는 1문제, 채권부분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3편 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2문제가

제4편 보전처분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출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예전에 비해 채권편과 보전처분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대신 부동산집행 부분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의 출제부분은 조문에서 35개, 판례와 예규에서 105개, 내용을 묻는 것이 35개 지문으로 분석되는데, 조문 판례 비중 약 80%에 이른 것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이지만 조문문제는 줄고 판례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판례부분도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고 보며, 지난해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시험도 작년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봅니다. 최우수자는 30개 정도를 우수자는 25개 정도를 보통은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으리라 보며 역시 지난해처럼 과락자가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 향후 학습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간 흘린 땀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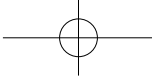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07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상 업 등 기	총론		5		3	2	5	15
	상호			1	1	1		3
	무능력자							0
	지배인			1				1
	합자조합							0
	합명회사							0
	합자회사							0
	주식회사		3	6	6	7	5	27
	유한회사					1		1
	외국회사					1		1
	유한책임회사			1	1			2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		2	3	1	2	1	9
	총칙		1	1	2		1	5
비 송 사 건	민 사 비 송	법인에 관한 사건		1				1
		신탁에 관한 사건					1	1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0
		민사비송 종합문제	1	1				2
	상 사 비 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사채에 관한 사건						0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0
		상사비송 종합문제	1		1	1		3
	법인등기		1				1	2
	과태료 사건		1					1
총 계			15	15	15	15	15	75



■ 제21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을 동일하게 출제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 변형되거나 응용을 요하는 지문들이 상당 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단순 암기하였던 수험생들은 지문이 낯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서의 내용과 각 선례, 예규의 의미를 잘 숙지하여 놓은 수험생이라면 2~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답을 찾기 어렵지 않게 출제된 특징이 있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아 시간적 압박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학습방향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법무사 업무의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함에 비하여, 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체법인 민법의 법인편,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의 이해도와 맞물려 상업·법인등기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면이 있고, 최근 출제경향 또한 개념의 유기적인 정리·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1단계 기본 강의시에는 실체법들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준비하여 확실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기출지문과 최신 예규·선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축약/정리하면 모두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기초가 튼튼하면 회가 거듭할수록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는 반면, 처음에 체계가 흔들리면 끝까지 암기할 양이 줄지 않는 과목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출제경향으로 보면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동일 개념을 묻되 지문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할 때와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나, 기본 개념과 판례·예규·선례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지문의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느낌을 받아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대로를 암기하기 보다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 예규나 선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배경이 되는 취지를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암기의 양도 줄이고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학습전략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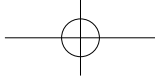
상업등기법 김경중 법무사

08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부동산등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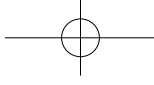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부동산등기법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1장	총칙	등기할 사항	2		1		1	4
		등기의 효력	1					1
		중복등기	1	1				2
2장	등기소와등기관	등기소		1				1
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1				1
		공개제도					1	1
4장	등기신청인	일반원칙(미성년자)		1		2		3
		등기신청의무					1	1
		등기당사자능력			1			1
		대리인			1			1
		법인	1					1
		법인 아닌 사단		1	1		1	3
		포괄승계인					1	1
		대위등기			1	1		2
		외국인, 재외국민	1	1		1	1	4
5장	신청정보			2	1			3
6장	첨부정보	등기원인증서		1	1	1	1	4
		등기필정보 등					1	1
		허가동의증낙서	2	1	1	2	3	9
		주소증명정보				1	1	2
		인감증명	1		2	1	1	5
		기타	1	1			1	3
7장	판결등기		1	1	1	1	1	5
8장	전자신청		1	1				2
9장	등기실행 절차	보정/취하	1	1		1	1	4
		각하			1	1	1	3
		완료이후절차		1	1			2
10장	이의절차			1	1		1	3
총론 (합계)			13	16	14	12	18	73



Judicial Scrivener 「학습전략」

부동산등기법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11장	소유권	소유권보존	2	1	1	1	1	6
		소유권이전	4	2	2	3	1	12
		공동소유			1	1		2
		환매특약 등		1				1
		금지사항등기 등					1	1
12장	용익권		1	3	1	1	1	7
13장	담보권				2	2	2	6
14장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	1	1	1		2	5
15장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변경등기			1	1		2
경정등기		1		1			2	
말소등기		1		2	1		4	
회복등기		1			1		2	
16장	가등기		1	1	1	2		5
17장	처분제한 등기	가압류	1			1		2
		가처분		1	1		1	3
		경매, 공매	1	1	1	2	1	6
		기타				1	1	2
18장	구분건물		1	1	1			3
19장	신탁	신탁	1				1	2
20장	기타 등기	환지등기	1	1				2
		채무자회생		1		1		2
각론 (합계)			17	14	16	18	12	77



08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부동산등기법

■ 제21회 시험 총평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부분의 출제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서중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을 당황하게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총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30문제중 18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많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출제되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출제가 빈번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총론편 [1장]에서 등기능력여부, [4장]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외국인/재외국민등기절차, [6장]에서 등기원인증서, 각종 허가서, 인감증명, [6장]의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9장]에서 보정/취하, [10장]의 이의신청절차 관련 문제, 각론편 [11장]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12장]의 용익권등기, [13장]의 담보권등기, 14장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 16장의 [가등기], 17장의 [경매]관련 부분을 들 수 있다.

■ 학습방향

◎ 전체 체계(목차)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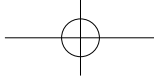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부동산등기법 체계를 목차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이 등기법의 복잡한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등기법 공부가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법은 2차 시험에서 논술형태로도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등기법을 공부할 때에 수시로 목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본서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예규나 선례가 통째로 인용되면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예규나 선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보는 교실에서 등기예규나 선례의 긴 문장구조를 쉽게 파악하여 틀린 지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등기예규와 선례를 숙지하는 길고 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요약서의 중요성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시험 경향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약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목차집을 가지고 등기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요약서[Upgrade 부동산등기법]를 가지고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위 요약서에는 그 동안 21번의 출제문제를 모두 통계화하여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언급하였으므로 등기법 1차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Judicial Scrivener 「**학습전략**」

◎ **객관식 문제풀이의 중요성**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은 기출 문제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OX 문제 등을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풀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유석주법무사의 네이버밴드에서는 위 기본서목차, 법원기출문제, OX문제를 제공한다라는 점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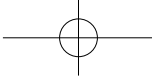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09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공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공탁의 법적성질							0
공탁의 종류							0
공탁소 및 관할		1	1				2
공탁당사자		1		1			2
공탁물							0
공탁신청절차		5	4	4	1	1	15
변제공탁			3	3	3	4	1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1	2	2	3	1	9
보증공탁			1		1	2	4
집행공탁		3	2	4	3	3	15
혼합공탁				1	1	2	4
대공탁, 부속공탁				1			1
공탁서 정정			1	1	1	1	4
지급청구권의 변동		1	1		1	1	4
공탁관의 사유신고		1	1			1	3
소멸시효					1	1	2
공탁물지급절차		6	3	1	5	1	16
공탁관 관련절차		1	1	1		1	4
전자공탁				1		1	2
총계		20	20	20	20	20	100



Judicial Scrivener 「학습전략」

■ 제21회 시험 총평

1. 출제된 부분

제21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공탁에서 2문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1문제, 전자공탁 1문제, 변제공탁 3문제, 집행공탁 3문제, 담보공탁 2문제, 지급청구절차에서 2문제, 사유신고에서 1문제, 지급청구권의 변동에서 1문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1문제, 공탁서 정정에서 1문제, 소멸시효에서 1문제, 공탁물 납입에서 1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2. 지문 분석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3. 난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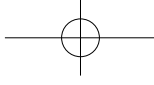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새로운 지문 8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입니다. 고득점자가 가장 많을 과목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1문제~1.5문제 정도가 쉬웠다고 보여집니다.

4. 2016년도 대비 공부 방향

기본서에 소개된 판례나 선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예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



22개월의 학원수험생활을 마치며



제18회 합격 차경진

• 들어가며

저는 2010년 11월 서울법학원 야간 직장인 종합반(근로자취급과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무사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능할까 스스로 반문하고,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학원수강을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 학원수강생활을 시작하고, 하루 단 30분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결석은 하지 않는다.

제가 서울법학원 법무사 대비 종합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 저 자신의 개인적 생각임을 전제로 -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오랜 시간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지식은 그리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장인들은 격무와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등 수험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부는 업무, 직장생활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경우 역시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책 한 권 보는데 몇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험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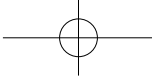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따라서, 저에게는, 수험생활을 철저히 하기 위한 세상과의 적절한 단절이 필요하였고, 그 단절을 지켜 줄 굳은 의지와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퇴근 이후 철저히 학원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1차 시험을 볼 때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1차 대비 모든 과정을 수강신청하고 수험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듣게 됨으로써 항상 긴장하고, 직장 생활로 소홀해질 수 있는 공부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수업시간에 최대한 필기를 한다.

수업 시간에 마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는 듯이 팔짱을 끼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반은 야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격무에 시달린 후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수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졸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은 지나온 후 생각해보니 결론론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1차 종합반 수강 시



절 당시 각 과목에 임하면서 교수님들이 무슨 중요한 말이라도 하면 반드시 필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공부하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필기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업시간에 혹 지나가는 말씀을 필기하기 위해서 과발개발 글씨를 쓰게 되고, 나중에 들여다 보면 저 자신도 무엇을 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수업시간에 항상 필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 교수님들을, 교수님들의 강의 및 교수님들의 교수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저는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 수험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였고, 왜 좀 더 일찍 서울법학원에 오지 않았을까 후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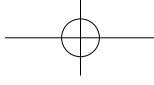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 질문, 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쉽게 해결되고 이해가 되었던 강의시간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감동스럽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 합격생도 아니고, 시험 출제자도 아닙니다. 저는 바로 서울법학원의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 중 교수님들의 강의를 60%만 이해하여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교수님들의 강의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교수님들이 지시하는 방법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이에 자신의 노력이 더하여져 합격은 필연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 학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간다.

저는 1차 수험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여야 하였고, 수험생활에서 특히 직장인에게 초지일관을 지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간의 직장생활 경험에 비추어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 11월 수강신청하면서 1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서울법학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모두 따라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얽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 너무도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생활에 대하여



◎ 공부 방법

위 1항에서 밝힌 사항은 제가 1차 시험 대비를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1차 시험 공부 방법론과 관련하여 남과 달리 특별하게 수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시간에 충실하고 자 노력한 것 말고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7일간 집중적인 공부였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때문에 강의 시간 외에 따로이 시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실상 강의를 듣는 시간만이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저의 공부시간이었고,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곤하여 바로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어서는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울법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60점을 갓 넘는 수준이었고, 저는 당시 저의 점수에 크게 상심하지는 않았지만 - 어찌 보면 직장인으로서 그와 같은 모의고사 성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스스로 위로하였던 것 같습니다. - 다만 정말 한 번 열심히 공부해 보고 1차 시험을 보고픈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시험 일주일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011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고, 시험(2011년 6월 25일)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모두 7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일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본서를 볼 수도 없고, 따로 정리노트를 만든 것도 아니어서 고민 끝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공부했던 문제집 8권만을 들고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아침 서울법학원 지하 자습실을 배정받아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7일간 모든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리라 다짐하였고, 전체 페이지수를 토대로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약 13시간) 및 공부할 수 있는 일수(7일)로 나누어 보니 1시간 당 약 100페이지를 보아야 하였고, 이를 다시 분단위로 환산해보니 약 1분당 1장, 한 페이지당 약 30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뒤쳐진만큼 그 부족분을 만회하여야 하였고, 저는 그 방편으로써 7일 동안에 문제집 8권을 다 보아야 하였으니까요.

10분 단위로 공부 속도를 체크해나가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속도를 내어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여 풀어나



갔고 진정 온 정신을 집중하여 어떻게든 당초 목표한 시간당 공부량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에 전과목의 문제집을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7일간 내에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문제의 지문, 답의 지문을 최대한 머리 속에 구겨 넣으면서 문제집 8권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1차 합격의 요인

첫째, 모의고사 등 성적이 나빠도 굳이 그러한 사실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평균 100점이 아니라 컷 라인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비추어 충분히 컷 라인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도 학원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서 각 강의 시간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7일간 내에 문제집 8권을 일독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7일간 집중하여 문제집이라도 전과목을 일독하였다는 점입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시험장에서는 보다 기억에 생생한 지문과 정답을 적지 않게 고를 수 있었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각 자의 조건에 맞게 자신의 공부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다양한 공부방법이 목적하는 목표는 시험 전과목을 얼마나 단 시간내에 일독 해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켰는가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2차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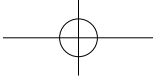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 2차 수험생활에 대하여

◎ 학원 수강의 선택

2차 수험 방법도 1차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차에 합격한 후 직장을 포기하고, 수험에 전념하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끝에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대비 1년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제가 1년 과정을 등록한 이유는 서두에 밝힌바 있듯이 수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수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에 비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2차 시험의 특성상 더 큰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만 전체 강의를 듣고 그 이후에는 혼자 공부를 해도 된다는 말들을 하였고, 저는 잠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 혼란스럽기도 하였지만 저 스스로 무척 게으른 면이 있었고, 혼자 조그만 책상에 앉아 10시간 이상을 버텨 내어야 한다는 것이 무척 거부감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9월 동차반이 시작된 지 3주 정도 지난 무렵 1년 과정에 등록을 하고, 수험 공부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을 날려 버렸습니다.

◎ 순환별 공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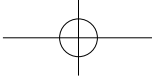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처음 동차반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점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눈으로만 읽고 있고 머리로는 전혀 읽고 있지를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있으니 불과 5분전에 읽은 것도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효율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차반이 끝나고 17회 2차 시험을 본 이후 예비순환과정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및 1순환까지 공부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순환 민소법강의가 시작되면 강의를 1시까지 듣고, 이후 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예비순환 민소법 과정 중 3분의 1 기간 내에 전(前)과정인 동차반 민소법 동영상 강의를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배속으로 최대한 빨리 수강을 완료하고(1년반 과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3분의 1 기간 내에 민소법 수험서를 읽는데 집중하고, 마지막 3분의 1 기간 내에는 실강을 수강한 이후 현재 과정인 예비순환의 민소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 순환당 4회독의 효과가 있었고, 이해의 폭이 깊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1순환까지 하고, 2순환부터는 수험서를 읽고 정리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순환부터는 매일같이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순환부터는 그날 배운 과목을 그날 복습하는 공부법을 버리고, 최대한 빨리 그 과목의 책을 선행하여 정리한 후, 그때까지의 나의 지식으로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별도로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던 것인데 이는 모의고사로 객관적 평가를 저 스스로에게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는 민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민법 1독을 마쳤고, 민법 강의 중에는 다음 시작할 형법을 공부하고, 형법 강의 기간 내에는 형소법을 공부하고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니 처음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가 점차 강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성적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더군요. 즉 예를 들어 형법 과목 실강이 끝나갈 무렵이면 물론 실강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책을 정리한 지가



벌써 약 3주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일주일 내에 본 부분은 기억이 생생하고, 2주를 넘기면 알듯말듯하고, 3주를 넘기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막바지 2주일 내에 전과목 3회독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수험전략(박효근 법무사님이 강의 내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이 왜 그래야 하는지 2순환을 마쳐가면서 어렵פות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의 수험공부는 동영상강의는 접고, 오로지 실강과 책 읽기 위주로 변경하고, 따로이 서브노트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책에다 정리를 해가면서 시험보기 2주 내에 3회독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주 내에 법무사 2차 시험 전 과목을 3회독 하려면 1시간당 얼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계산해 보니 처음 1주일엔 시간당 약 100페이지(50장)이고, 나머지 1주일엔 시간당 200페이지(100장)를 읽어야 하였습니다. 저의 2순환, 3순환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 막바지에 이에 근접한 효율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회독수가 차 오르는 3순환에 이르자 어느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그 내용이 읽기도 전에 목차가 머리 속에서 그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공부시간과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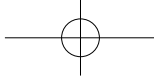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2차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시험 막바지 마지막 온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순환까지 대략 2012년 6월 초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하루 2시간 정도 검도를 하여 체력을 다졌습니다.

나중에 이 체력이 바탕이 되어 큰 무리 없이 3순환과 시험 보기 2주 전의 과정을 견뎌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시간은 예비순환, 1순환까지는 하루 약 12시간 정도를 확보하였던 것 같고, 3순환에서는 약 14시간 정도,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시험 당일까지는 약 15시간에서 16시간을 확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도 공부를 쉬지는 않았습니다. 주 2, 3회 검도를 한 시간을 일요일로 보충하였기 때문입니다.

•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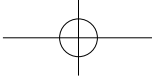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짧게 쓰고자 하였는데 그간의 수험생활을 대략적이거나 조금은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적다보니 생각보다는 긴 장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에게, 특히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합격하신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합격에 이르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다양한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오로지 수험생 분들이 찾아야 할 각자의 몫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희에게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유석주 법무사님, 배병한 법무사님, 박효근 법무사님, 김영환 교수님, 송춘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직 수험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준 아내 정진숙과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중퇴에서 법무사 합격까지



제18회 최연소 합격 권진혁
(19세)

• 들어가며

우선 떨어지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지쳐있었는데 합격하게 되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니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스쳐가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실력과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합격수기를 쓰게 되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어린나이에 법무사시험공부를 시작한 경우라 어떻게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써보겠습니다. 2008년 말 무렵 당시 태국에서 살고 계시던 이모부내외의 권유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에 맞춰 과외도 받고 입학할 학교까지 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심했던 강박증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도중 우연히, 초등학교 5학년때 쯤 아버지께서 '나중에 커서 실력이 된다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해보라'고 하신 말이 떠올라서 법무사시험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았습니다. 일단 시험응시에 있어서 학력과 나이제한이 없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시고 계셔서 부동산과 법에 관심이 많아서 법무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법무사의 하는 일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사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쉽게 허락해주셨고 어머니는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곧 허락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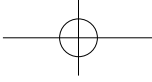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2009년 1월, 서울법학원 3순환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제 수험기간은 시작되었습니다.

• 1차시험

◎ 2009년 1차시험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한자도 잘 모르던 제가 기본강의 종합반을 수강하는 것은 죽을 맛에 가까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거의 모르겠고 당시 한시간 십분이상되는 거리를 버스타고 통학하다 보니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졸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하던 한 누나는 '애는 이렇게 잠만 잘거면서 왜 학원에 오지?' 라고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기본강의 수강이 한번 끝나고 4월부터 서울법학원 자습실에서 얼마간 김준호저 민법교과서 몇페이지를 보다가 곧 시험때까지 학원자습실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 책을 보는등마는등하며 놀았습니다.

6월달에 1차시험을 보러 갔고 28점이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을 때라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 2010년 1차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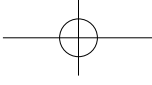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법학원에서 기본강의를 골라서 계속 수강했습니다. 법은 현실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사회생활경험이 적어서 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른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이 풀어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성취도를 느끼며 공부했지만 급한 마음에 요약집을 너무 빨리(1월쯤) 보기 시작했고 결국 기본기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66점으로 낙방했습니다. 결국 시험은 기본실력이고 요약집의 암기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위주의 공부를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 어린나이에 너무 자신감에 차있었던 모습은 일종의 자만이었구나... 열심히 하여 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011년 1차시험

1차시험에 떨어진 후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새로운 2차시험과목을 미리 준비하라는 주변 형들의 조언대로 2차시험 동차준비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예비순환기간에는 박효근법무사민법예비순환강의와 오경조법무사부등법예비순환강의를 동강으로 보았습니다. 11월에 가족과 함께 서울대입구역근처로 이사를 왔고 본격적인 1차준비는 2011년1월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목별로 공부방법을 말해보자면 민법은 김준호기본서를 위주로 보았습니다. 부등법은 유석주기본서와 오영관 요약집을 보았습니다. 민법과 부등법은 2차시험까지 염두해두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민집법은 여러책을 다 보았는데 나중에는 이천교법무사 기본서를 주로 보았습니다. 상법은 김혁봉교재와 문승진 조문판례를 보았습니다. 상법은 휘발성이 강한데 김혁봉회계사강의를 듣고 남들보다 상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상법을 취약과목에서 전략과목으로 바꾸어 준것 같습니다. 헌법은 황남기교재를 보았고 공탁법은 배병한기본서와 김옥태요약집을 보았습니다. 공탁법은 그해 어렵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사례문제들을 대비했던 것이 주효했던것 같습니다. 상등법은 전성재요약집을 주로 보았고 가등법은 김지후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좋아하는 체질은 아니라 몇몇과목을 빼고는 주로 끝까지 기본서위주로 보았습니다. 끝까지 기본서로 볼지, 문제집으로 마무리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스타일에 달린 것 같고 시간대비 효율성은 학원의 문제풀이 종합반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친 후 가채점 결과 77.5점이 나왔고 어느정도 합격을 예상했습니다. 시험발표날 77점이 나왔고 기쁘기보다 너무 절박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2차시험

◎ 2011년 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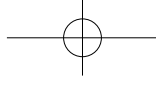
1차합격의 기쁨도 잠시, 서울법학원에서 중합반을 끝었다가 결국 민법, 민소법강의만 듣고 양에 치어 포기하고 나머지과목을 환불하였습니다. 동차기간동안 민법, 민소법외의 과목은 한페이지도 못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떨어지는것 테스트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면 채점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었던 스타일로 답안지에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대한것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와서 놀랐고 시험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정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이 결국 기득권시절 공부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준 원동력이었던것 같습니다.

◎ 2012년 기득권

민법, 민소, 형법, 민사서류 예비순환강의를 수강하였고 동시에 박승수민사소송법 강의와 김정철형사소송법강의를 동영상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어느정도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1월말쯤에 상당히 안좋은 개인적인 일이 닥쳤고 그 여파로 방황을 하며 1순환때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 것이 시험때까지 두고두고 안타까웠습니다. 1순환동안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예전 이두형법무사 동영상강의를 조금 보았고 80년대 관운직책을 구해서 읽어 보고 김일수형법교과서도 구해서 발췌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법논리학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궁금한 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도서관에 가기도 했고 홍영기 고려대학교 형사법교수에게 메일로 논문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차피 시험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시기여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토마코토가 한말처럼 '유효한 쓸데없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순환은 주로 모의고사반 위주로 수강했는데 1순환동안 제대로 진도를 소화하지 못했던 터라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순환때 했던 연구들 때문에 답안지의 차별성은 생겼는데 막상 알맹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공부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결론과 키워드위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순환때까지도 그렇게 정리하면서 모의고사반위주로 수강했습니다.

시험이 3주정도 남았을 때는 이번에 함께 합격한 김형주형과 저녁마다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날 공부한 것을 서로 빠르게 설명해주고 시험전략을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교재들을 보았기 때문에 반복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략도 잘 맞아 떨어진것 같습니다.

참고로 답안지는 답안 목차에 구애받지 않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답안지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전에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대신 시간이 남으면 문제제기나 검토는 아는 한 많이 적어주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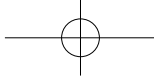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실력은 부족했지만 원래 실전에서 강한 스타일이라 시험장에서 만족할만한 답안지를 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지만 시험장 당일 컨디션이 좋아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 마치며



짧지 않은 수험기간이었고 남 다른 수험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에게 가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여호와 하느님과 부모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저를 이끌고 함께 합격하게 해준 동기 김형주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영형, 이동근형, 송기정형, 박주현형, 정경현형, 우진선형, 오혜경누나, 심재광아저씨를 비롯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와 많은 관심가져주신 학원강사님들과 실장님에게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롭고 우울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해지면 절박해질 수록 합격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중학교 중퇴자인 제가 합격했다면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0회 수석 합격 김석중

• 2차 시험을 치루며

◎ 1교시 -민법-

과락과 수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2014년 9월26일 첫째 시간 민법문제를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달되는 서늘한 기운, 과락의 공포였다!

민법 1문 <도급>분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야였다. 다들 그렇듯이...

무엇보다 판례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었고 유사사례를 학원에서든 서울 올라가기 전 사시테이프로 독학할 때 든 다루어본 적이 없었던 파트였다.

마음을 다잡고 우선 도급 조문을 펼쳐놓고 사례를 읽으면서 조문과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례 자체가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사례에 대한 판례사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논점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명시적인 판례 기술 없이 조문만으로 기술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사안을 조문에 따라 포섭해 나갔다.

논술시험은 질문에 맞춰 기술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론과 논거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1문의1부터 결론을 잡아 나갔다.

1문의1

(1) 지체상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2) 법정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1문의1은 먼저 사안의 도급관계에서 건물이 완성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 내지 결정하고 논점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고, 전체 건물 규모에 비추어 욕실 2개 중 1개의 미완성(아예 시공을 안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마감처리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은 사회통념상 건물의 완성 후 발견된 하자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안을 포섭해 나갔다.

먼저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소논점 (1)(2)로 나누어 각 지체상금 청구불가, 법정해제권 행사 불가로 내려놓고 논거에 들어가 소논점(1)에서 도급의 정의와 사안에서 일의 완성여부를 논점으로 잡아 기술한 후 도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논거의 결론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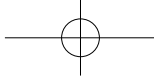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소논점(2)역시 제668조에 의하여 건물의 하자가 사회통념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논점을 전개한 후 법정해제권 행사불가로 결론 내렸다.

1문의2-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1문의2는 2차 시험 중 가장 당황한 논점이었다.

유치권판례와 동시이행항변권 판례를 거의 다 정리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급관계에서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는 판례만을 근거로 일은 완성되었다고 역시



판단한 후 양자가 각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수급인의 유치권성립 주장에 대하여는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와 견련채권 및 변제기 도래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하자보수채무가 보수청구채권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는데 실제 1문의2를 기술할 때는 먼저 결론을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기술하였고 논거를 기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거 마지막과 결론 마지막에 권리남용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기술하였다.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한 것으로는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1문의3

1문의3은 제667조만으로 사안을 포섭하는데 무리가 없어 조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하자보수청구불가하고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사안의 결론을 내렸다.

제2문

제1문을 망설이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기술한 덕에 2문을 시간 내에 충분히 기술할 수 있었다. (내용생략)

결국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웠던 제1원칙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한다!”는 합격전략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시험의 제1관문을 무사히 넘기게 된 나름의 방법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결과는 70.5

◎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무사 실무관련 판례를 정리하라!

1교시 민법을 불안한 마음으로 치른 후 맞이한 제2교시,

시험지를 받아들고 먼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를 어 보았다.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시간 내에 전체를 빠짐없이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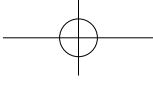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1문이 눈에 확 들어왔다.

문제로 만들어 두었던 판례를 그대로 출제한 것이다.

법무사가 형사소송을 다루는 실무는 고소장 작성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소파트와 약식명령은 중요판례를 최신순으로 빠짐없이 정리했다.

형법도 경매관련, 등기관련 형사판례는 case화 시켜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

초안지를 잡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1문부터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2문-3문은 전원합의체 판례 사안이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를 했겠지만 1문을 풀지 않고 2문, 3문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 된다.

1시간 내에 형사소송법을 마무리 짓고 형법으로 넘어가 초안을 잡았다.

형법은 내내 부담을 갖고 학습한 과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의 도움이 가장 컸다.

서울법학원 3순환과정 이용배 선생님의 case기술방법을 어느 정도 습득한 것이 논점 일부를 놓치고 사안을 풀었음에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결과는 형사소송법 38.5 형법28.5

2틀째

◎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서류-

중요파트 최신판례를 Case화 하라!

첫째 날 형사소송법 제1문이 사례로 준비해 둔 판례에서 제출되었기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그동안 아이패드에서 정리해 두었던 판례case 자료(90p분량)를 한번 듯이 보았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어제 다시 본 판례였다.

부산에서 2007년판 사시테이프와 교제로 강의를 들으며 각 해당분야의 최신판례를 대법원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판례검색한 후 중요하다 싶은 판례를 case화 시켜 나가며 디지털자료로 정리 했었다.

〈민사소송법은 기관력과 병합소송(주관적, 객관적)이 전부다!〉고 한다.

기관력과 병합소송에 대하여는 끝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신 중요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것 같다.

초안작성 없이 1문과 2문(논점을 빚나갔다)을 기술하자 40분이 남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사서류(소장)를 시간 내에 작성하였다.

결과는 민사소송법51, 민사서류23

◎ 2교시 -등기논술. 등기신청서류-

이해와 서류 중심으로 공부하라!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탓으로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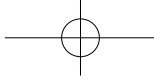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앞선 과목에서 여유가 있지 않았다면 가장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리라...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강을 들었던 과목이었고 시간배분도 가장 많이 하였다.

3순환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법과 중복되는 지점을 찾아서 판례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변제자대위-공동저당. 공동저당 대위등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말소, 말소회복등기〉〈경매관련판례-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등..

수험생들이 제1문 등기필정보 문제가 가장 쉬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겐 불의타가 되었다.



하필 두문자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파트였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1문을 잘게 잘라서 출제한 덕분에 그냥 조문만으로 소화하고, 2문 20점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말소등기와 이해관계인에 관해서는 민사실체법과 등기절차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이해(즉 이해 관계인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의 형식으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대항력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1문의 불의타를 2문에서 보완하고 서류에서 과락면피 하자는 생각으로 미련없이 써 나갔다. 3순환에서 연습한 유증 서류문제여서 다행이었고 시간 내에 마무리 하였다.

결과는 등기논술 42, 등기신청서류22

• 2차 시험에 이르기까지

1994년 상가분양회사에서 상가분양영업을 시작으로 부동산업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2년 정도하다가 업계가 혼탁해서 2군 종합건설회사(동문건설)에 입사했다가 2년만에 imf를 맞아 퇴직하고 친구가 창업한 시행사에서 아파트 용지매입업무를 2년 정도 담당 했습니다.

2000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고 중개업을 6년 정도 운영하였는데 점차 직업적 자부심에 회의가 들기 시작해서 법무사시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업계가 건전한 투자문화 없이 안팎으로 투기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망에서 법무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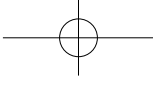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2008년 연말에 일산에서 부산으로 낙향했습니다. 법무사 실무와 가장 가까운 부동산업인 공인중개사 경매전문 사무실을 오픈해서 3년간 경매관련 실무(민사집행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일정한 물질적 준비도 마련되어 딱 3년 만에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사무실을 넘겨주고 2012년 2월부터 다시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해 1차 낙방하고 다음해에 1차 턱걸이로 합격 후 서울에 올라와 서울법학원 동차반 3개월 수강 후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하고 서울법학원에 동차반 수강하러 올라와 보니 제 나이가 수험생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막연히 수년간 고시준비하다가 눈높이?를 낮추어 법무사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법학전공 기타 인문계통 전공한 젊은 청년들하고 경쟁해서 2차를 패스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었는데, 막상 서울 올라와 보니 각자 처한 장단점이 있어 '나이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사 시험 성격상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논술case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공부는 사실 제가 길었던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점수도 겨우 턱걸이로 합격했으니까요 (70.5). 저는 고시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험테이프를 구매해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 2013년 1차 시험에서



그나마 학원들에서 진행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해서 시간 안배하면서 실전연습을 한 것이 효과가 있어 겨우 컷오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서울로 갈 수 없는 분들은 가급적 학원 인강이라도 진도 맞춰 수강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1차든 2차든 합격을 위해서는 시간 안배가 생명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난이도를 해마다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헌법과 상법이 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다면 2013년에는 헌법과 상법은 짧고(지문의 길이가 곧 난이도입니다) 민법지문이 길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경매 실무 3년 경험으로 민사집행법에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 민사집행법에서 고전을 했고, 마지막 시간인 등기·공탁법에서는 시간이 모자라 마지막 7개를 내리 5번으로 색칠해서 제출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난이도를 높일때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민사실무제요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수험생의 출제경향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원교수님들의 역량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신중한 학원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시간 안배가 제일 중요하고,

2013년 1차 합격 후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법학원에 동차반을 수강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처음 듣다보니 개념정리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3개월 과정 중 형법이 제일 나중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의 강의가 저와 맞지 않아서 중도에 듣는 것을 그만두고 구입해 두었던 이용배교수님의 사시1차mp3플레이어와 교재로 전체 진도의 3분의2정도 듣고 시험에 응했으나 역시 형법에서 형편없는 점수로 과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얼추 컷오프 점수대를 받았습니다. 평균48.5점 나왔습니다.

얻은 것이 있다면 결론이 틀리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논점을 전개해 나가며 전체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한 경우 평균 50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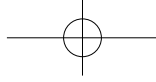
그래서 제가 세운 2차 제1원칙은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 없이 푼다!'였습니다.

1차를 지방에서 처음 합격하신 분들은 꼭 동차반을 수강하길 권합니다. 집중적인 과정을 한번이라도 거치고 실전을 치루어 보아야 2차 적응력이 생깁니다.

2013년 2차 시험 후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본격적인 2차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동차반을 이미 한번 수강했다는 자신감으로 2순환 즈음에 서울로 올라갈 계획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예비순환-1순환을 생략하고 2007년도에 사두었던 사시2차테이프와 교제(2007년도판)를 가지고 민법(윤동환), 민사소송법(이종훈), 형사소송법(김정철)을 들었고, 형법은 이용배 교수님의 사시1차mp3플레이어(그나마 최신판인2012년판)와 교제(신체계 형법강의)로 각 2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위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권장할 수 없는 방법이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형사소송법은



개정법과 차이나는 것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중요개정 내용의 범위를 파악했다는 것과 2007년 이후 판례를 대법원판례정보를 검색해 가며 2007년 이후부터 최근판례까지 별도로 정리 했다는 것입니다.

사시를 준비하시다가 오신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설은 일단 전부 접어 두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게 학설을 정리해 보았자 학설을 논점으로 해서 전개할 시험문제가 나오지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등기논술이었습니다. 암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편이라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막막했습니다. 다음으로 과락을 받았던 형법이었는데 총론 중 학설을 버리고 가지 못해서(학원 강의를 들었다면 달랐을 텐데) 이미 사둔 교재와 테일로 소화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막상 시험에서는 민법 제1문 도급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오로지 조문만으로 Case를 풀었습니다. 건설회사와 부동산 경험이 감으로 받쳐 주지 않았다면 시간 내에 전체 문제를 기술하겠다는 제1원칙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1원칙 '제 시간대에 전체 문제를 빠짐없이 푼다!'즉 시간안배입니다.

3순환 모의고사 과정을 충실하게 실천처럼 연습한 것이 효과적이었고, 전 과목 모의고사 과정도 별도로 신청해서 시간안배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학원도 수험생도 이 과정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부분(판례나 분야)에서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안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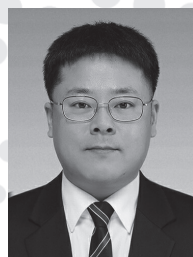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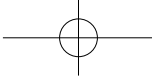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민법 도급부분 이외에는 준비했거나 다루어 본 판례와 분야에서 출제되었는데, 민법 도급부분은 출제된 Case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지조차 아직 검색해 보지도 않았습니만 출제된 사례가 조문만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간 끌지 않고 조문만으로 사안을 포섭해서 시간 내에 풀어 나갔던게 위기탈출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형법 1문은 미리 준비했던 판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형사소송분야에서 자주 실무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약식명령이 출제1순위라고 판단하여 대법원판례정보에서 약식명령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정리했었고, 그 중 가장 난이도 높은 최신판례였기 때문에 문제로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년도 오기 문제로 좀 당황했었는데(변형된 문제인가 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내용이어서 검사가 실수로 '오기한 것이므로 공소장 정정사안으로 포섭'해서 처리했습니다.

수험생의 제1스트레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암기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가급적 먼저 암기하려고 하는 것 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제21회 우수 합격 이영민

• 들어서며

이번 21회 법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이영민입니다. 5년 전, 처음 법무사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단지 영어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나 쉽게 생각한 시험이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법적 지식도 없이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뛰어들었고 한 번의 좌절 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으로 중간에 그만 두기도 했지만, 다시 도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제 수험생활이 다른 분들처럼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노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법무사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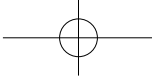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 공부 방법

◎ 1차 시험 준비

처음 1차 준비는 6개월, 그 후 다시 1년을 공부했으며 1년 6개월 후 처음으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사 1차 시험은 과목수가 8개나 되기에 많은 분들이 어떤 과목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민법입니다. 민법은 법무사 시험 1차, 2차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1) 민법

저는 법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1년 정규과정을 등록을 했습니다. 첫 강의가 부동산등기법이었는데 4시간 동안 그저 앉아 있다가 점심 식사 후 오후 과목으로 민법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모했지만 이준현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저와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흐름을 먼저 잡아 주고 나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면서 진행하다보니 어렵지 않게 민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민법을 공부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다 알거 같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2차 시험 전날까지 괴롭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공부 시간이 1차, 2차 통틀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민법 공부는 1차, 2차 따로 공부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1차 공부를 하면서 민법에 대한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차 공부 편해집니다. 저는 1순환 때에는 기본서를 정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현 교수님의 강의노트를 구입하여 거기에 제가 별도로 필기를 추가하였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노트가 민법 틀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해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 기본서를 2회독 하였고 그 이후 기본서를 별도로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으며 파트별로 사전 찾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2) 상법

제가 처음 1차를 공부할 때에 상법은 주로 회사편에서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출제된 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나왔기에 정리만 잘 해놓으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수 교수님 강의 방식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해주셔서 상법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은 초반에 회사편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반복적으로 돌려서 회사편에서는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며 보험, 해상, 어음수표 부분은 누구나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에 기본적인 틀만 잡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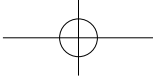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민사집행법은 민법 다음으로 1차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민사집행법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목 특성상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한 후에 접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이 1차 과목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차 공부를 하면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라고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듣는 대신 우금도의 민사집행법이라는 책을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정독으로 1회독 했습니다.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인강을 2~3번 정도 더 돌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김정태 법무사님 실강을 1번, 인강을 2번 빠르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법무사님이 하는 농담까지 외웠습니다. 그 후 12월 달에 배병한 법무사님 야간수업을 실강으로 한번 듣고 기출문제를 계속 들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틀리면 기본서를 민법과 같이 사전처럼 찾아보면서 그 부분만 빠르게 보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보다는 이해가 안 되거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을 그때 그때 찾아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각론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총론에서 먼저 설명하기에 초반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독을 하기 전에 소설책 읽듯이 기본서를 1회독을 하였고 1회독 후 각론부분을 먼저 정독했습니다. 각론을 먼저 공부하면서 각 파트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총론을 보면서 점점 수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2회독 정도 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잘못 정리한 것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갔으며 3월 쯤에는 대부분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5) 공탁법

공탁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과목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탁법은 민사집행법의 채권집행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판례가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간단한 절차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탁법에서는 절대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과



목이기에 채권집행파트를 제대로 공부하신 후에 공탁법의 판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6) 상업등기법, 가등법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에 이 부분을 써야할지 고민했지만 솔직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작성합니다. 저는 상업등기법과 가등법은 1차 시험 2달 전에 아는 분의 필기를 복사해서 1주일정도 시간을 가지고 인강을 1번 돌리고 기출문제만 반복했습니다. 문제 수에 비해 공부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았기에 계속해서 기출 되는 부분만이라도 맞추자고 생각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가등법 역시 친족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7) 전반적인 1차 시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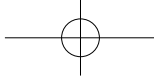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달리 객관식이기에 시간싸움입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하기에 객관식 문제집을 빨리 풀고 많이 읽는 방법으로 눈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과목이 많으니 빈틈없이 모두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기출 되는 부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1차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시험 준비

생동차와 기득권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3개월 정도 다른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법무사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 민법

2차 공부를 하면서는 1순환, 2순환 민법강의를 따로 수강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매일 1~2시간씩 각 파트별로 공부했습니다. 2순환 때는 모의고사만 보고, 3순환 때는 모의고사를 본 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 때부터 정리해 놓은 게 많은 도움이 되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대로 저는 처음 1차 공부를 하면서부터 '민법은 1차, 2차 과목이기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판례뿐만 아니라 요건과 효과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량을 외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문을 보면서 그 요건들을 뽑아낼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판례가 아닙니다. 요건과 효과입니다. 공부하면서 주위 분들을 보면 판례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건과 효과를 알고 계신 분이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요건과 효과를 왜 외우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요건을 먼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시면서 그 판례가 어떤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1차 시험 후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는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이해한 후에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소송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2순환, 3순환 정도 되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형법

형법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판례를 거의 보지 않고 구성요건을 정리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특히 각론에 나오는 죄마다 실행의 착수시기, 기수미수 구별기준, 죄수 파악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2순환부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사례에서 죄목을 뽑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죄목을 뽑아내고 문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하면 그 이후에는 이재영 교수님이 강의시간에 설명한 정해진 목차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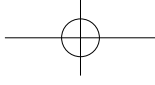
형사소송법은 2순환부터 강의를 들었기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진 과목입니다. 우선 아는 분의 기본서를 빌려서 강의시간에 밑줄 친 부분을 위주로 빠르게 2회독했습니다. 3순환 때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강의시간에 김영환 교수님이 강조한 부분을 위주로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5) 민사신청서류 및 등기신청서류

민사신청서류 과목은 청구취지 작성요령과 요건사실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요건사실은 민법 공부할 때 외웠던 요건들이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등기신청서류 과목은 유석주법무사님의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를 하루에 2개씩 풀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서류과목은 처음 공부할 때 이외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틀만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6) 전반적인 2차 시험 준비

저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차 시험이 1차 시험과 다른 점을 먼저 생각해보았습니다. 1차 시험은 주어진 판례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2차 시험은 사례가 주어지면서 그 사례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즉, 2차 시험은 각 법의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판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고 시험 사례가 외운 그 판례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졌다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판례는 양이 방대



하기에 우선 기본적인 틀을 잡은 후에 판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 입니다.

•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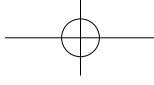


수기를 작성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수기가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힘이 들면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강박관념은 공부에 해가될 뿐입니다.

회독수를 늘리는데 주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읽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세 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만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셔서 매일 매일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자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회 수석 합격 조희창

• 시작하기전

먼저 법무사 시험 초심자들에게 입문에 앞서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시길 진지하게 당부해 봅니다. 현재 법무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장미 빛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데 적게는 2년 많게는 수년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선불리 시작하였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읽어 보시어, 합격에 이르기 까지 어떻게 노력하여야 하는가와 스스로가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를, 잘 가늠해 보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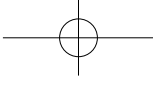
만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고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합격하기까지 땀 흘려 노력할 각오가 서 있고, 긴 수험기간 동안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그때 비로소 출발할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시작이 반

대학졸업 후 변변한 존재감 없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2003년경 우연한 기회에 법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며, 설사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단과 강의로 공부하여 보았으나, 법학의 법자도 모른지라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잠만 오기에 몇 개월 만에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련은 계속 남았고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나이 거의 50세가 다 되었기에 더 이상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시험의 당락을 떠나 진짜 열심히 한 번 최선을 다 해보고, 합격하면 정말 감사하고 떨어지면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기로 최종결정하고, 2013년 7월 15일 인터넷 연간 1차 종합반을 등록하면서 법무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수많은 합격수기를 읽어 가다보니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대강 이렇게 공부한다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구체적인 노력이나 대가는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심을 내었고, 현실을 냉철히 보지 않고 탁상에서 공론하면서 고고히 살고자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4년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합격수기를 계속 읽다 보니 공부는 굵고 짧게 그리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제21회 법무사시험 우수합격”을 목표로 확정하고 2013년 말경 위와 같은 “미리 쓴 합격수기”를 작성하여 내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 보았습니다. (다음해인 2014년 1차 합격 후 동차에 과락 없이 근소한 차로 떨어지자, 만일 시작할 때 제20회를 목표로 공부하였다면 동차로 합격하였을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차 점수는 사실 과분한 점수였으며 1차 공부할 때부터 동차를 생각했다면 아마 1차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하면서 시험에 먼저 합격한 분들의 방법을 배우고, 나에게 맞게 설계하여 “나는 제 몇 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와 그에 따른 플랜을 명확히 하고, 과정 중에 있을 어려움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합격해서 쓸 합격수기를 미리 써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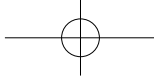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 1차 기간



시험공부는 학문과 달리 단기간 합격이 목표이므로, 반드시 수험전문기관인 학원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단과반이나 여러 군데의 학원 강의를 듣다보면 스케줄이 중복되기에 복습할 시간이 없으므로 학원 한 곳을 특정하여 연간 종합반을 수강하였으며,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였기에 새벽 3~4시 경에 일어나 그날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동영상은 단 1차례도 빼먹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나 업무상 차량 이동시에도 차에 설치된 블루투스로 동영상을 들었고 기타 이동 중에는 무선헤드폰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한 반복 청취했습니다. 퇴근 후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10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었으며, 평일에는 4시간 정도 밖에 잠을 못 잤기에 운전 중 깜박 졸려 놀래기도 여러 번 하였고 일요일에는 조금 늦게까지 잠을 푹 잤습니다. 최대한 학원 교수님의 강의 지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두문자도 교수님이 만들어준 것만을 암기 하였으며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의만 들으면 그때는 알아들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었기에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95%정도 복습 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일부러 힘들게 열정적으로 장시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새벽이라 집중도 잘되었기에 4시간 동영상을 쉬지 않고 계속 들었으며, 하루 종일 공부하는 날에는 최대한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기 연습을 하였고, 처음에는 1~2시간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가 10시간 정도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기를 몇 번 해 보니 4~5시간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1~2 시간 공부한 후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잠깐 바깥바람을 쐬는 등, 몸을 자주 풀어 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였는가를 엑셀파일로 표시하여 매일 매일 체크하였으며 15시간 이상 공부하는 날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후에는 별다르게 시간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원 강의를 충실히 따라갔는데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아닌 실제 강의를 들어보고 다른 수험생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서울법학원 본부장님께 부탁해 2014년 1월 16일부터 3일간 실강의를 듣고 스터디매니저인 황정규 법무사님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1년 안에 그것도 업무를 보면서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1년에 합격하면 좋지만 안 되면 2년에 하라고 했는데 황정규 법무사님은 1년에도 합격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라고 조언했고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객관적인 테스트를 위해 3월 서울에 올라와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았고 당시 ‘첫 모의고사에 20등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딱 20등을 했습니다. 두 달 후 다시 상경해 모의고사를 한 차례 더 보았고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77점을 받아 합격하였고 곧바로 2차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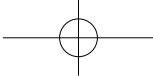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헌법+상법 74] [민법+가등법 80] [집행법+상등법 72] [부등법+공탁법 82] ----- 평균 77

〈1차 교재〉

헌법- 이재영 기본교재, 문제집

상법- 이상수 기본교재, 조문집, 문제집

민법- 이준현 로고스조문판례, 문제집, 김준호 민법강의



가죽법- 실재순 기본교재, 문제집
민집법- 김경태 기본교재, 문제집, 배병한 조문판례
상등법- 전성재 기본교재, 문제집
부등법- 유석주 기본교재, 문제집
공탁법- 배병한 기본교재, 문제집

모든 과목의 기본교재 1개를 확정하여 그 책만을 보았고 일체의 다른 교재는 보지 않았으며 종합반 강의 중에 서 잘 맞지 않는 과목은 타 학원의 교수님 강의를 기본서로 확정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기록은 하였으나 별도의 강의노트나 요약집은 만들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취약한 과목은 면과락 또는 평균 부근 정도의 점수를 맞고 잘하는 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학원 모의고사 총4회중 1회와 3회를 상경하여 보았고, 나머지 모의고사와 타 학원 모의고사 2회 정도를 도서관에서 혼자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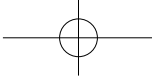
1차시험은 특히 조문과 객관식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틈틈이 시험 때까지 보았으며 판례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1차 공부중 일정한 눈금 이상 공부를 하여야만 점수가 높게 나오고 그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 점수가 적게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그러한 과목은 임계치를 넘게 공부하였습니다. 상법은 회사법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공탁법은 완전히 이해하도록 공부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처음 풀 때 정답을 표시하지 않고 풀고, 틀린 문제를 표시하여 다시 풀고, 또 틀린 문제만 다시 푸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1차 기간 슬로건 - 이해함에 만족 말고 암기하여 합격하자. 공부는 불을 만큼만 80점을 목표로, 서울법학원의 3%가 되자. 수업 중에 파이팅 하여 즉시 즉각 빨아들이자. 1차는 읽는 순간 ○, × 가 떠나 한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반복 반복 반복만이 살길이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히 합격하자. 어쩌면 이순간이 행복한 때 일지도 모른다.

• 동차 기간



1차시험 가채점 후 합격권에 있었지만 동차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다 재시에 합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차시험을 준비하며 조언을 받았던 행정규 법무사의 '서울에 올라와 동차만 수업 듣는 것이 좋다'는 전화를 받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경하



여 3개월간의 동차반 강의를 들었고 18회 김○미 법무사를 만나 2차 공부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들었으며, 학원 부근 독서실에서 복습을 하고 11시경에 광명에 있는 작은 자형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단박에 합격하신 작은 자형으로부터 궁금한 부분과 시기별 공부하는 방법, 공부가 잘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항상 자문을 들었습니다.

형법은 예전에 1차 과목이었을 때 몇 개월 공부하다 만 것이 전부였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복습도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형법은 어려웠고,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작한 형사소송법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며, 감기까지 겹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차에서 어떻게든 과락을 면하자 그러면 합격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험 당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차반 윗층 강의실에서는 재시반 3순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그들은 약간 지친 모습으로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3순환 모의고사장에 들어가 처음 산 시험용 법전을 펴놓고 명상에 잠기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혀 답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무언가 열심히 쓰는 그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9월에 있을 시험은 그들과 함께 보는 것이기에 내용도 잘 모르는 모의고사 답안을 독서실에서 시험 볼 때까지 여러 번 읽어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동차시험 결과는 과락 없이 평균 52.29점, 컷라인이 53.94점이었기에 정말 아쉬운 점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다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른 기간도 중요하지만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는 동차기간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법 56.5] [형법 20.15] [형소법 24.5] [민소법 31] [민사서류 17] [부등법 38.5] [등기신청 21.5] ----- 평균 52.29

〈2차 교재〉

민법- 박효근 기본교재

형법- 이재영 기본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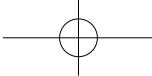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형소법- 김영환 기본교재, 블랙박스

민소법- 박효근 기본교재

민사서류- 배병한 기본교재

부등법- 유석주 1차기본교재

등기신청- 유석주 기본교재



위 기본교재와 수업중 배포한 유인물, 그리고 재시반 모의고사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험용 법전을 읽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재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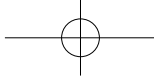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시험을 본 직후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광주로 돌아왔고 1주일 정도 쉬 다음 인터넷 2차 년간 종합반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비순환부터 예습 복습을 하며 하루하루 충실한 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 재시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기에 사무실을 그만 두고 수험에 올인 했습니다. 큰 아들을 대입수능학원에 내려주고 가까운 공공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 하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에 잠시 다시 책을 보기도 하였으며,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종합반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동차시험을 토대로 2차 시험출제 경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준 부분과 모의고사로 다루었던 부분에서 상당부분 출제되고 있다고 판단됐고, 민법은 기본적 논점에서, 형법은 기본적인 틀에서, 형소법, 민사소송 등은 최신판례가 그대로 출제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민사서류는 기본 민법지식이 중요하고,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은 최근 법규나 예규 판례 중 변경되거나 쟁점이 된 것들이 출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동차 점수를 보면서 처음 배운 형법, 형소법에서 과락을 면하고 총점에서 합격점에 근소하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충실히 공부하였고, 다른 동차생과 달리 재시반 모의고사 문제를 읽어 보는 등 시험 위주로 공부하여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시험은 무조건 120명을 뽑는 상대평가이므로, 문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쓴 것 과 내가 쓴 것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현재 S학원과 H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이 대부분이므로 S학원과 H학원에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나오면 모두에게 불의타가 될 것이므로 잘 쓰지 못해도 상관이 없으나, S학원에서 강조한 것만 하였는데 H학원에서 강조한 것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타 학원의 2순환 3순환 모의고사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2순환 부터는 형법을 하는 중에 타 학원의 민법 모의고사를 풀고,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타 학원의 형사소송법을 풀고 하는 식으로 겹치게 공부하였습니다.



2차시험은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방에서 공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회 합격하신 나○민 법무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광주에서 공부했습니다. 때마침 올해부터 온라인 침삭이 새로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2순환부터는 단 한 번의 모의고사도 빼놓지 않고 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7시 40분에 보았으며, 비록 혼자 보는 모의고사지만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였고, 답안 작성 시에는 각 문제의 배점을 생각했으며, 아무리 못 쓴 답안이라도 전부 업로드해서 연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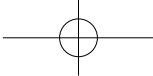
그러다가 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하는 궁금증과 함께 시험 보기 직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3순환의 맨 마지막 강의인 민법을 수강하였습니다. 민법 첫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딱 20등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의고사에 대한 별다른 준비 없이 본 점수가 상위권인 것을 보고 지금까지 온라인침삭으로 답안작성 연습을 한 것이 실제 모의고사를 본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의고사는 특정 파트를 잘 보는 것보다는 전체 평균점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시 기간 동안에도 잘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못하는 과목은 과락을 면하는 작전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실무에서도 거의 활용이 없는 형법은 비록 전체적으로 모두 빠뜨리지 않고 공부하였으나 교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쓸 수 있게 연습하였고, 형사소송법은 최신판례위주로 공부하였으며, 민법과 민소법, 부동산등기법은 보다 폭 넓게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판례를 따로 구한다거 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강점이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집중하여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예비순환이 없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아 타 학원의 1순환 강의를 추가로 들었으며, 목차를 외우는 것은 실제 해보니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매 강의에 따라 그날의 단원에 대하여 목차를 보면서 심도 깊게 이해하며 정리하였고 반드시 등기신청서류 양식과 첨부서면을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하였으며 매 순환마다 이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신탁과 합필등기가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신탁이 출제된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여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차 시험을 80점 목표하여 77점을 맞았기에, ‘2차 목표를 65점으로 정하면 60점정도 맞겠구나’ 생각하였는데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민법 57] [형법 25] [형소법 33] [민소법 48.5] [민사서류 18][부등법 65.5] [등기신청 26.9] ----- 평균 68.48



〈재시 추가교재〉

부등법- 오영관 기본교재

등기신청- 오영관 기본교재

• 몸과 마음의 건강

특별한 노하우는 없으며, 땀을 흘려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런닝머신을 주 3회 정도 하려고 노력했으며 런닝머신을 하는 중에도 그 날의 동영상 강의를 무선 헤드폰을 쓰고 들으면서 하면 금방 1시간이 되었고, 체력 보강을 위해 비타민도 먹고 평상시에도 맛있는 음식과 건강식을 즐기는 등 항상 잘 먹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는 공부하지 않고 쉬었으며, 일요일에는 성당에 나갔고 특별히 진도가 밀리지 않는 한 쉬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뭔가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 때에도 항상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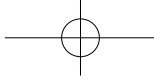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 시험직전 노력하기

시험직전 버티기와 마무리, 최선을 다하되 진짜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기

법무사 시험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지에서 매일 꾸준히 달리다가 언덕 부근에서 가속도를 이용하여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단기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힘든 마지막 고비에서는 안간힘을 써서 정상을 넘을 때까지 페달을 밟아 그 기세로 넘어야 합니다. 만일 여타의 이유로 언덕의 중간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몇 배의 힘을 들여야만 넘을 수 있기에 최종 시험당일을 목표로 평지에서부터 힘을 꾸준히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이란 시험장에서 기술한 것만을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므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평상시에 성실하게 구슬을 만들고, 시험 직전에 그 구슬을 잘 꿰어서 제출한다면 합격이라는 영광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첫째, 문제를 아주 천천히 읽는다. 둘째, 정답 결론을 낸다. 셋째, 최대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쓴다. 형법은 주거침입과 폭처, 민사소송법은 소송법임을 명심하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엔 일체 잡담을 하지 말자. 등에 유념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가 없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생각보다 편안하게 시험 보았습니다.

• 새로운 시작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작

맨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함께 ‘나도 그분들처럼 합격하여 합격수기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하였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목표하지도 않은 수석이라는 행운에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노력한 이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서울법학원 교수님과 관계자분, 그리고 황정규, 김○미, 나○민, 법무사님과 모의고사 온라인 첨삭제도를 도입해준 로스파 담당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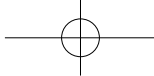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특히 근소한 차로 동차에 떨어졌을 때 당신의 사법고시 경험을 들려주시며 ‘방심하지 말고 재시에는 수석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신 법무사 김영곤 소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 돌아켜 보기



지나고 보니 시험에 관한 단 한명의 말벗도 없이 지방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복 없이 매일 벽돌을 쌓듯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원 종합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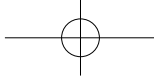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무슨 공부를 하든지 홀로 공부하다 보면 오랜 시간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단 과반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강의를 밀리거나 복습을 미루게 되는데, 종합반을 듣게 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매일 강의를 듣고, 그날그날 복습을 해야 하기에, 힘겹더라도 꾸준히 하루하루 따라 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 있고, 빠뜨리는 부분 없이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공부하게 되어 과락의 위험을 없애줍니다.



또한 로스파의 모바일동영상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게 해주었기에 반복학습이 되었고, 특별히 타 학원에 없는 온라인 첨삭이 때마침 올해부터 제공되어 지방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유용한 학습이 되었기에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되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삶이란 모든 이가 각기 형태만 다를 뿐 항상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기에, 스스로가 선택한 힘든 수험생활을 성장하는 과정이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21회 우수 합격 유형욱

•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유형욱입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다는 축하전화를 받고 벅차오르는 감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밀려오는 후회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2차 시험 8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기간에 합격을 이루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면을 빌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험생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험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적기로 하였습니다.

• 기나긴 수험과정

합격의 최종문은 2차 시험의 통과에 있기 때문에 저의 2차 시험과정만을 돌아켜본다면,

1) 첫 번째 2차 시험 — 소위 생동차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러하듯이 1차합격의 기쁨과 2차 수험생 신분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동차반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2) 두 번째 2차 시험 — 기득권

예비순환부터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복습위주의 공부를 했으나 공부한 시간만큼 낭비한 시간도 너무 많았습니다.

실력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3) 세 번째 2차 시험 — 재동차

3시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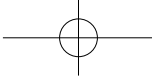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학원 모의고사 점수와 등수가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만은 금물!

민사서류 작성 과목을 등한시한 덕분에 과락.



4) 네 번째 2차 시험 — 재기득권

3시때와 반복된 학습태도, 민사서류 따윈 합격에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생각.
같은 이유로 과락, 불합격.

5) 다섯 번째 2차 시험 — 재재동차

5시부터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는 느낌의 착각이 듭니다.
이미 교만에 가득 차서 학원 강의는 시간 낭비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합격권에 있었으나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

6) 여섯 번째 2차 시험 — 재재기득권

5시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합격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착각입니다.
작년에 열추 1등으로 떨어졌으니, 올해는 꼴등으로라도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딱 떨어질 만큼만 공부를 한 것이겠지요.

7) 일곱 번째 2차 시험 — 재재재...

시험장을 나와서부터 합격자 발표 때까지 합격의 기대감이 가장 컸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도 너무나 컸던 시험. 역시 근소차 불합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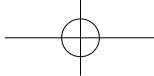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8) 여덟 번째 2차 시험 — 인생을 바꾼 마지막 시험

생계를 위해 수험생활을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했던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는 압박감과 꼭 합격하고 싶다는 절박감.
직장생활 때문에 두 달 밖에 준비하지 못한 공부시간 동안 그 절박감은 공부량과 집중력을 항상 시켜주었습니다.
나름 고득점의 합격!!!

• 조언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수험기간을 지나긴 과정이었고, 잘못된 수험생활이었습니다.
감히, 수험생 여러분께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만, 시험에는 분명 왕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학원의 커리큘럼이 법무사 시험에서는 분명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특정 학원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원 수강을 하시던지, 학원 수업을 꾸준히 들으며 진도에 맞추어 공부하고, 다른 경쟁자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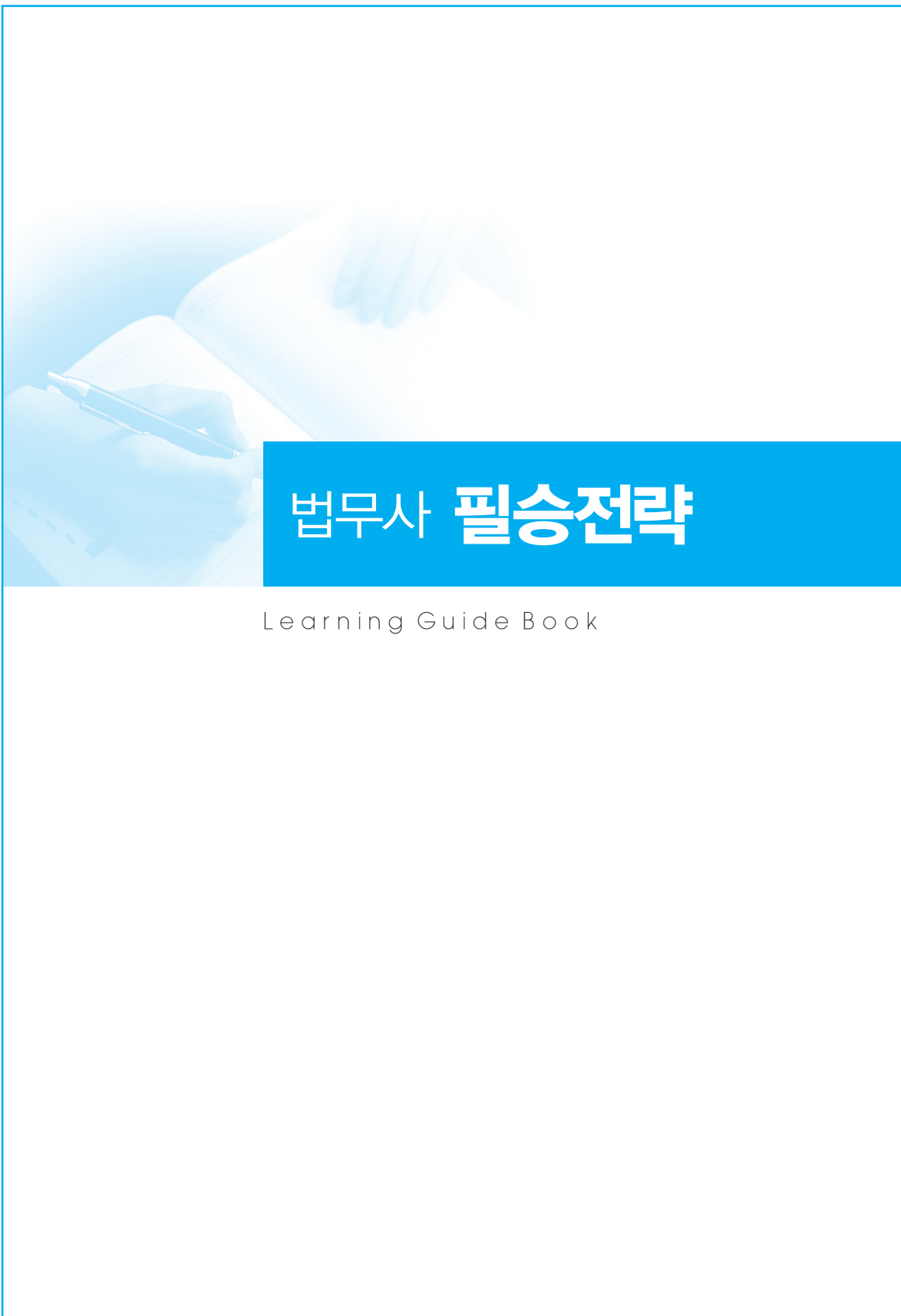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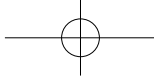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동료인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수험기간을 더 길게,
수험생활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2차 첫 시험부터 이것이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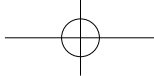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수험생의 시간은 공부를 해도 흘러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나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다른 유혹에 빠져본들 본인의 신분이 수험생이라면,
그 유혹의 시간 또한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불합격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풍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이 힘드시다면,
몇 달 후에 불합격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응원합니다.



법무사 필승전략

Learning Guide Book



D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6년차인 나는 35세 남자이다.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2개월 전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상태이다. 전공은 행정학이지만 전공공부와는 또 다른 법과목에 당황스럽고, 전체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는 중이다.

▶ 학습수준 : 하

▶ 시험준비 경험 : 무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전공 : 행정학

Advice

직장생활과 시험공부의 병행은 한마디로 쉽지가 않다. 하지만 남다른 꼼꼼한 학습계획과 실천의지가 있다면 성공이 가능하다. 직장인은 대학생이나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하므로 그만큼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한 학습도 필수적이다. 주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동영상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과목별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 없는 암기는 사상누각이므로 반드시 시간이 없는 중에도 강의 등을 통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금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이라면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 먹은 일 좀 더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면 합격의 길은 멀다. 우선 출근시간을 이용해 전날 학습한 내용의 요약집을 외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본인과 경쟁 기급적 다른 약속을 잡지 말고 집으로 직행해서 책상에 앉아라. 졸리면 5분만 눈을 감고 쉴 것! 그럴 땐 5분만 졸아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그리고 바로 학습에 들어간다. 정해진 스케줄을 반드시 완수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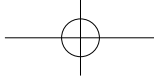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 토~일요일 학습 운영

직장인에게 주말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당신에게는 재충전보다는 에너지를 최대한 소비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주말은 기본이론보다는 주중에 학습한 내용의 심화학습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주말처럼 공부에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별로 없다.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스케줄상 기본이론의 학습과 심화학습까지 어느 정도 되면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인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모의고사는 뒤로 미루는 것이 낫다. 본인이 전 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온다고 느낄 때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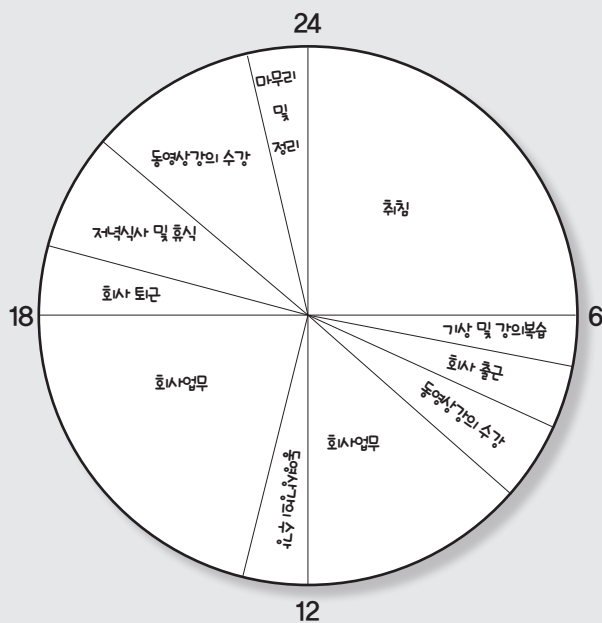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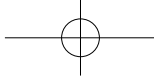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 추약과목 보충과 심화학습				← 문제풀이 과정 → 단위별 문제풀이로 문제적응력 향상				← 기본이론 과정 → 과목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초 실력 배양			
				← 핵심요약 과정 → 최종마무리 학습 통한 시험 완전 대비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7:00	기상 및 강의복습
	07:00~08:00	회사출근
	08:00~09:00	동영상강의 수강
	09:00~12:00	회사업무
오후	12:20~13:00	동영상강의 수강
	13:30~18:00	회사업무
	18:00~19:00	회사토근
	19:00~20:30	저녁식사 및 휴식
	20:30~23:00	동영상강의 수강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0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대학생이다”

대학 3학년인 나는 22세의 남자이다. 로스쿨 준비 전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좋을거 같다는 판단에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는 법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무작정 법무사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 학습수준 : 하

▶ 시험준비 경험 : 무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전공 : 경영학

Advice

현재 대학생이고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우선 방학 중 학원 종합반 수강을 권한다. 요즘 법무사 시험공부는 정보 근접성 없는 합격이 쉽지 않으므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쌓고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여름방학에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과목별 1회독을 한 후 학기 중에 동영상강의를 이용하여 개념내용을 한 번 정리하고, 겨울방학에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실력을 쌓는다면 탄탄한 실력이 마련될 것이다.

그 후 자신의 목표에 따라 마무리 특강 등을 수강하면서 내용정리를 해나가길 바란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학원 강의 일정에 따라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연습과 복습은 필수!!

○ 일요일 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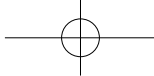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수험은 장기간을 요하는 레이스다. 따라서 학습시간과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휴식을 취하되 다음 주 일정까지 망칠 수 있는 무리한 휴식은 절대 금물. 긴장을 풀고 편한 마음으로 취약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방법을 생각해본다.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전에는 풀리지 않았던 고인 매듭을 풀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취약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조정학습을 실행해보자.

○ 정기적인 모의고사 실시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자기 실력을 검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복습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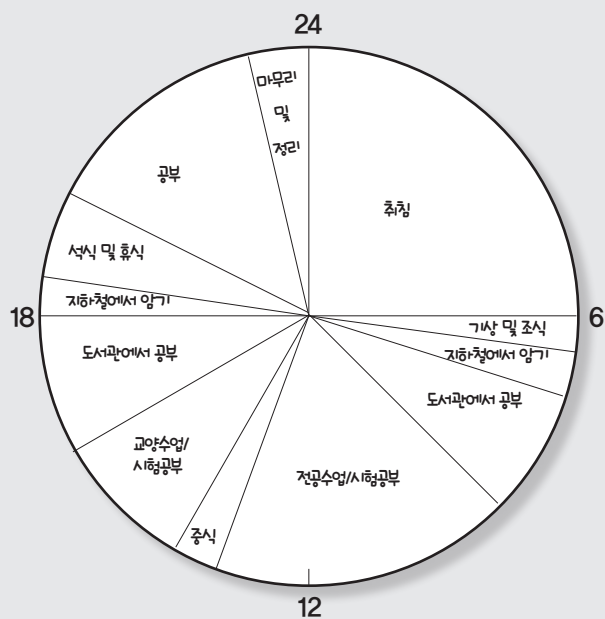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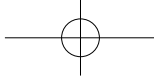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방학을 맞이하여 단기간 독점을 위한 추가과목 핵심요약 수강						← 기본이론 과정 방학을 맞이하여 학원 이론 종합반 강의 수강			← 기본이론 과정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기본 이론 학습		
← 문제풀이 + 핵심요약 과정 동영상강의를 이용한 단원별 문제풀이로 문제적응력 향상 및 최종마무리 학습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06:00~06:30	기상 및 조식
	06:30~07:00	지침·절에서 암기
	07:00~09:00	도서관에서 공부
	09:00~13:00	전공수업 / 시험공부
오후	13:00~13:30	중식
	13:30~16:00	교양수업 / 시험공부
	16:00~18:00	도서관에서 공부
	18:00~18:30	지침·절에서 암기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30	공부
	23:30~24:00	마무리 및 정리





01

법무사필승전략 - 수험생 유형별 맞춤학습전략



“나는 전업수험생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인 나는 올해 29세이다. 대학전공은 컴퓨터 공학이고 졸업한 후 잠깐 회사도 다녔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대입구역 수험가에 입성했다.

경제적으로

▶ 학습수준 : 하
▶ 시험준비 경험 : 무

▶ 준비기간 : 신규진입
▶ 전공 : 컴퓨터 공학

Advice

이과 계열에 관한 공부에는 이력이 나있지만, 특히 법학에 관해서는 공부해본 적도, 관심도 없었던 상태이므로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점에서 법무사관련 서적을 살펴보고 시험에 대한 전략적 지식을 쌓은 후 전문학원에서 수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퇴직을 한 상황이므로 하루의 대부분을 수험공부에 투자할 수 있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최단기간에 합격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성실히 공부해야 한다.

계획진행 포인트

○ 월~토요일 학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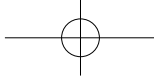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법무사 시험준비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수험 기간 초반에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각 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야 한다. 보통 학원에서는 2개월을 기준으로 기본서, 문제집, 심화이론 등에 관련된 강의가 개설 · 진행되는데 그에 맞춰서 수험 전체의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학원, 오후에는 개인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나가며, 하루 공부량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일요일 학습 운영

일요일이라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공부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휴식 시간을 갖되 2~3시간 정도만 일주일의 공부를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그 주에 공부한 부분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일요일의 무리한 활동은 내일의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 스터디 활동을 통한 학습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럴 때는 학원이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자신의 일정이나 공부 성향에 맞는 스터디를 골라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서 자칫 늘어지기 쉬운 수험생활을 다잡을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마음이 맞는 수험생과의 개별 스터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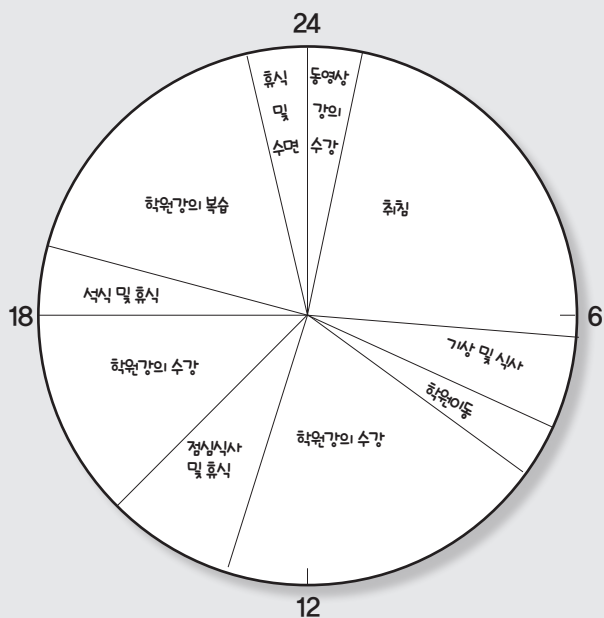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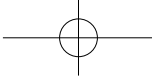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연간스케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심화이론 과정 취약과목 보충과 심화 학습			← 문제풀이 과정 단원별 문제풀이로 문제정정력 향상		← 핵심요약 과정 최종마무리 학습 통한 시험 완벽 대비		← 기본이론 과정 과목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한 기초실력 배양			← 기본이론 과정 스터디를 통한 테마별 집중 학습 및 동영상강의	

일일스케줄

	시간	내용
오전	24:00~01:30	동영상강의 수강
	01:30~06:30	취침
	06:30~08:00	기상 및 식사
	08:00~09:00	학원이동
오후	09:00~13:00	학원강의 수강
	13:0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8:00	학원강의 수강
	18:00~18:30	집으로 이동
	18:30~19:30	석식 및 휴식
	19:30~23:00	학원강의 복습
	23:00~24:00	휴식 및 수면





02

법무사 필승전략 - 최적의 학습스케줄 짜기

■ 1단계 학습계획 세우기

◎ 생활 패턴별 학습유형 선택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대학생이라면, 주부라면, 전업수험생이라면?

생활 패턴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스케줄링이 기본 중 기본이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험생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학원 중합반을 수강할 수도 있고, 동영상강의 혹은 독학으로 승부를 걸 수도 있다.

◎ 월간, 주간, 일일 스케줄

목표는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한 후 먼저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1주, 1일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자. 과목별 진도, 동영상 강의 수강 계획 등에 맞추어 자신이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설정하되 반드시 소화 가능한 분량으로 해야 하며, 과욕은 절대 금물이다. 도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스케줄을 실천하는 기쁨도 생긴다.

■ 2단계 학습계획 실천하기

◎ 꾸준히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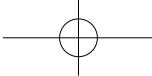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계획한 학습량을 소화해 내려면 무엇보다 시간관리가 중요하다.

일단 책상 앞에 앉았으면 적어도 2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짧지 않은 수험생활에서 규칙적인 생활 태도와 학습 태도는 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1시간 안에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다 보면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과는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다.

◎ 스케줄표 점검은 필수 중의 필수다

스케줄표는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수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잠들기 전 자신의 하루 학습 진행도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 3단계 피드백 및 계획 수정하기

학습 현황 및 실천도 확인을 통해 내가 계획한 스케줄이 나의 상황과 학습 패턴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체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 스케줄표를 가질 수 있다.

◎ 목표 달성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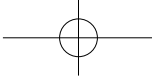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목표 달성 점검은 주간 단위로 하는 것이 좋다. 지난 한 주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 예시**
1. 목표 달성치 : 80%
 2. 달성 소감/미달성 이유 :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았다. 집안 일도 많았고 감기도 걸렸다.
 3. 자기 공부 시간 : 목표 10시간 (실행 : 6시간)

◎ 학습 진행 분석하기

긍정 요소에는 내가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등을 정리해 보고, 부정요소에는 내가 못한 것, 아쉬운 것, 실패한 것 등을 정리해서 개선사항을 개선사항을 찾아보도록 하자.

- 예시**
1. 긍정요소(GOOD POINT : 잘했던 점, 좋았던 점, 배운 점)
 - 나만의 맞춤 노트 정리를 잘했다.
 - 지하철에서 매일 20분정도 민법 조문집을 봤다.
 - 12시 취침, 6시 30분 기상을 지켰다.
 2. 부정요소(BAD POINT : 잘못된 점, 아쉬운 점, 실패한 점)
 - 저녁 시간에 드라마를 4차례 봤다.
 - 민법 동영상 강의가 하루 밀렸다.
 - 목요일에 과음을 했다. (치명적)
 3. 개선사항
 - TV를 끊자. 특히 드라마는 피할 것. 차라리 휴식을 위해 보는 경우라면 1회적인 영화나 다큐.오락프로그램을 보자
 - 술은 절대 금물. 가볍게 맥주나 와인 한잔 정도는 OK
 - 동영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말자!



03

법무사필승전략 - 자기관리법

■ 수험생 건강관리 이렇게 하자!

◎ 아침식사가 중요하다

아침식사는 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능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수험생활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 오랜 시간동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야식은 가능한 삼간다.

한의학에서는 "사상비위(思想脾胃)"라 하여 음식을 지나치게 먹거나 그로 인해 비위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쓸데 없는 공상이 많아져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식사를 되도록 가볍게 하는 것이 좋는데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은 가볍게 하고, 저녁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 또한 포만감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로나 졸음, 체중증강의 원인이 되므로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바른자세를 습관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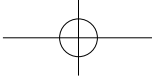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는 두통과 함께 뼈, 근육, 소화기 계통이 고장나기 쉬우며 척추측만증(허리구부림증)도 발생하기 쉽다. 특히나 수험생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른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속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준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트레칭은 신체적 피로나 근육의 건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식사후에는 바로 책상 앞에 앉기보다는 잠깐동안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평소 즐겨 듣던 음악도 긴장된 마음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 많이 자는 것보다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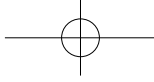
단시간을 자더라도 숙면한 상태면 피로가 풀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해져 두뇌활동이 활발해진다. 되도록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많이 함유된 음료는 삼가고, 커피나 청량음료 보다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도록 하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20

1. 추상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2. 목표달성을 위해 마감시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3.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4. "잘 할수 있다"는 자기암시의 힘을 활용한다.
5. 생각과 동시에 입버릇처럼 반복함으로써 자시를 만들어 간다.
6.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주 웃는다.
7. 편안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힌트가 잘 떠오른다.
8. 기회가 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9.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건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10. 뚜렷한 테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생활한다.
11. 집중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을 중간중간 취한다.
12. 하루종일 일하는 것보다는 몇일에 나누어서 일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13. "이 부분만 한다" 혹은 "이시간까지만 한다"는 식으로 범위와 시간을 정한다.
14. 조금빠른 속도로 걷는다.
15. 러닝머신이 아니라 밖에서 걷는다. 사람이나 풍경등이 풍부한 자극을 준다.
16. 피곤하면 잠시라도 휴식을 취한다.
17. 지나친 공복은 금물이다. 뇌는 하루 120그램의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
18. 콜레스테롤은 집중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19.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함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알린다.
20. 하체가 튼튼해야 한다.

- 나카지마 다케시 <짧은 시간 집중력 관리법> 중에서 -



법무사 합격하기 15가지 학습전략

1. 매일 일정시간의 공부량을 확보할 것

공부시간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단위시간당 집중도이다. 잡념을 제거할 것.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구호, 좌우명을 책상에 적어놓고 잡념이 발생시 속으로 구호를 외쳐 보자.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시간을 늘려야 한다. 실제학습시간을 종이에 적어보면 10시간 넘기가 어렵다. 그이유는 시간누수가 많기 때문이다. 커피타임, 잡담시간 등을 줄이자. 이것부터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이다.

2. 서브노트작성 혹은 밑줄치기를 할 것

서브작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밑줄치기가 유용. 밑줄치기의 경우 1회독 때는 샤프, 2회독은 파란볼펜, 3회독은 노란형광펜, 4회독은 주황색 형광펜, 5회독 때는 빨간 플러스펜을 쳐서(자를 대고 깨끗히) 마지막 정리때는 주황색 형광펜과 빨간 플러스펜을 친 부분만 읽는다. 1회독때 샤프로 하는 이유는 첫회독이라 중요도 선별의 어려움 때문이다.

회독수가 증가할수록 밑줄이 줄어들게 되어 정리에 합격의 강한 확신이 든다.

전과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시험직전에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 시험 전 마지막 1개월 4회독 전략을 성공할 수 있다. 시험의 당락은 마지막 1개월에 있다.

이렇게 마지막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여전히 예전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공부(눈으로만 공부)하면 시간이 흘러 갈수록 공부가 떠분해지며, 슬슬 입사시험에 기웃 거리게 된다. 결국 어쩔수 없이 돌아올 것이면서....

3.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mind control을 할 것

합격 후의 자기모습을 많이 상상해 보자.

4. 기출문제를 정리할 것

출제교수도 기출문제를 보고 전년도와 수준을 맞춘다. 객관식 문제집을 풀다보면 책들에서 기출문제 제외하면 남는 문제가 얼마 없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정리하면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5. 객관식 문제집은 틀린 것은 X, 찍은것은 O 등의 표시를 해둘 것

문제집에 이런 표시를 해두면 약1/3정도 분량의 문제만 남아 마지막 정리시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마지막 1개월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 문제를 풀다가 다시 풀 가치도 없는 것은 과감히 문항번호에 XX 표시를 한다.

오답노트도 권장할만 하다. 오답노트는 자주 틀리는 문제의 보기를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는 것인데, 정리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6. 단권화할 것

책을 한권보라는 것이 아니다. 기본서 한 권을 본 후 전체적인 체계가 잡힌 다음에 참고서를 보고 추가할 사항은 기본서 여백에 옮겨 적을 것.

그 다음에는 참고서를 다락에 넣어버리자. 책상에 있는 많은 책이 우리 가슴을 짓누른다. 볼 책만 선별하여 책상에 놔두자. 정신안정과 자신감에 도움을 준다.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씩만 두자.

시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불안감에 편승하여 요약집이니 핵심노트니 하는 책이 난무하지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한 책에서 다 나올 것이란 확신을 갖고 책 구입을 하지마라. 구입해도 새책은 머리말만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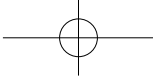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자신없는 과목이 책이 많은 법이다. 책이 많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시간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중독에 걸린 것처럼 책을 산다.

그래야 기본이 좋아진데나, 책값이 고가이므로 자중하자. 제일 한심한 경우는 산책 또 사는 친구이다.

7. 계획 수립할 것

1년은 6개월, 3개월, 1개월로 나눈다. 마지막 1개월은 15일, 10일, 5일, 1일로 나누어 전과목이 마지막 1월중 4회독 되어야 한다. 결국 6개월에 1~2회독, 3월에 1회독, 마지막 1개월에 4회독되어 총 6~7회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1개월 물리적시간은 1개월이지만 체감시간은 1년에 버금간다. 그리고 바로 이 1개월에 당락이 결정된다. 이때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대부분 불합격에 대한 대비로 피병인 경우가 많다. 합격의지가 강한 자는 병도 이긴다. 평소에 운동과 비타민제로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주자.



8. 법전을 참조할 것

법전을 항상 옆에 놔두고 해당 법조문을 찾고 형광펜으로 표시하자. 책에 법조문이 나와도 법전을 보는 습관을 들여라.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데 이렇게 학습하면 후회하게 된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님을 명심하자.

9. 목차를 중시할 것

모든 기본서에 목차를 복사하여 해당과목 학습시에 옆에 놔두고 지금 어디를 보는지 찾아보면 공부하자. 이것이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학습이다. 목차를 자주 보면 장, 절 등의 큰제목이 보이고 그에 딸린 내용들을 알게 된다. 부모와 자식관계를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저자는 목차로써 자신의 의견개진의 흐름과 방향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목차에 친숙한 공부를 하면 단편적인 공부를 한사람보다 학습시 남는 내용물이 누진적으로 배가된다. 빠가 있어야 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0. 문제집을 볼 것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 응용력을 키우자. 기본서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문제집해설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풀 때는 해설과 답을 가리고 풀고, 문제해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므로 답에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풀 때는 짝수, 홀수로 나누어 푸는 것이 좋음. 유사문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빠른 진도가 빨라져 기분이 좋을 때 문이다.

수험생 중에는 단원별로 나누어 이론공부 끝나면 곧바로 해당단원 문제를 풀고 다맞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방금 본 것 기억 못하는 바보도 있나? 이론과 문제풀이에 시간간격이 있어야 진정한 평가가 된다.

11. 바뀌는 법령에 주의할 것

바뀐 법령에서 시험 빈출한다. 또한 판례에도 주의하자. 판례는 오답사비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교수들이 모든 법학시험과목을 출제할 때 계속 선호한다.

12. 생활을 단순화 시킬 것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관계된 일만하자. 시험기간에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결국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새털 같은 나날이 아니다. 헤어지라는 뜻은 아니고 현명히 대처하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공부를 방해하는 잡다한 여러가지가 상존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써보자. 그리고 해결방안을 써보자.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 문제의 핵심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곤란문제는 합격 후로 미루고 공부에만 전념하자.

13.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기분에 따라 공부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규칙적인 학습을 위해 타이머를 이용하던지, 공부시작 시각, 휴식시간, 식사시간, 공부끝난 시각을 매일 체크하여 자신의 공부패턴과 총 공부시간 등을 매일 종이에 적어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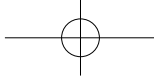
개중에는 기분 내키면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부터 행방불명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 기분파형 수험생은 수험장수파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14. 모의고사를 보자

학습량에 비해 시험운이 없는 분은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응용력을 배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시험점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신을 속이지 말자. 특히, 2차 시험을 위해서는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15. 합격기를 보자

수험장지 등에 게재된 합격기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의지를 굳게 세워야 한다. 합격기를 보고 다아는 시시한 것을 썼다며 코웃음치는 사람은 명심해야 한다. 합격은 아는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남보다 더 실전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나만의 슬럼프 극복법

아무리 의지가 강한 수험생이라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슬럼프!

수험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때 도 있습니다. 처음 굳게 먹었던 마음이 흔들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긴장감도 방향 감각도 무뎌질 때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고 합격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흔히들 수험생활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법무사 시험준비생이라면 공부 자체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집과 회사에서 이런저런 눈치가 보이고 빨리 합격해야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하게 되니 몸만 자꾸 힘들어지죠. 또한 한동안 공부에 손을 놓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 뿐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합격통지서를 쥐는 그 순간 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먼훗날 법무사가 되어 “아,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도 뿌듯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